

토론회

1인가구여성, **이기적 선택**은 있는가?

일시 : 2016년 10월 20일(목) 오후 3시
장소 : 창비 서교빌딩 50주년홀 (지하 2층)

순서

■ 15:00 -16:30 발제 및 토론

사회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영상 통계 밖에서 움직이다 : 1인가구 문화제 '1들의 파티' 스케치_by 문준희(시도필름 대표)

발제 1. 1인가구 담론이 담지 못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 김나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제 2. 1인가구 여성, 구조적 한계와 능동적 선택 사이에서
: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토론 1. 박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토론 2. 송영신 (변호사, 시니어희망공동체_구.한국1인가구연합)상임대표

토론 3. 이지혜 (대중문화 웹진 IZE 기자)

■ 16:30-16:50 질의 응답 및 전체토론

목 차

■ 발제1. 1인가구 담론이 담지 못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 5

: 김나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I. 들어가며
- II. 조사자 기본정보
- III. 1인가구 여성, 어떻게 호명되고 있나?
- IV. 1인가구 여성, 이렇게 살고 있다
- VI. 맺으며

■ 발제2. 1인가구 여성, 구조적 한계와 능동적 선택사이에서

----- 43

: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1. 1인가구 여성, 새로운 주체의 탄생 : '낙인'에서 '라이프스타일'로
2. 연구방법론
3.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젠더 불안정성
4. 여성들의 서사 분석
5. 마무리

■ 토론문

- | | | |
|---|-------|----|
| 토론1 - 박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 | 66 |
| 토론2 - 송영신 (변호사, 시니어희망공동체
구. 한국1인가구연합 상임대표) | ----- | 70 |
| 토론3 - 이지혜 (대중문화 웹진 IZE 기자) | ----- | 75 |

발제1.

1인가구 담론이 담지 못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김나현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¹⁾

1) 본 발제문은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대표, 성평등복지팀 최원진, 김희영, 김진희, 김나현 활동가가 5차례에 걸쳐 논의한 내용을 김나현 활동가가 대표 작성하였다.

1. 들어가며

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은 결혼과 혈연 이외의 다양한 관계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가족 중심으로 구성된 복지 제도를 ‘개인’ 단위 기준으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등 우리 사회 공동체의 기본 철학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해 왔다. 3년간 주거-노년-1인가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성세입자 문제, 노년과 관계망에 대한 새로운 상상, 1인가구여성의 경험과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해왔다.

최근 통계청이 1인가구가 27%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인가구가 대표적인 가구 형태가 되었다는 사실에 사회는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정부는 저출산이 위기라며 그 주된 원인으로 만혼 및 비혼을 지목하고 있으나, 실제 여성들의 현실과 경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우회는 1인가구는 과연 누구이고 혼자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선택을 하게 된 현상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당사자의 이야기를 통해 밝혀 보고자 했다. 올해 6월, 1인가구여성들이 직접 자신들의 삶에 대해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문화제 ‘1들의 파티’를 개최하였으며, 141명의 설문조사와 15명에 대한 심층 면접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 발제문을 통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담론과 정책 방향이 어떻게 1인가구여성의 현실과 어긋나 있는지를 밝히고, 새로운 복지제도의 설정과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자 한다.

II. 조사 대상 및 방법 개요

5월부터 9월까지 141명의 설문조사와 15명에 대한 심층 면접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초 계획에는 설문조사가 없었으나 인터뷰이를 모집한다는 홍보 글을 올리자마자 70여명이 넘게 신청이 쇄도하는 것을 보며 여성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설문조사를 기획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의 답변이 객관식 문항에 의해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문항들을 주관식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민우회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였고 5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으로 결과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가 주로 20~30대(83.59%)의 비혼(94.33%)인 저소득층(200만원 이하 78%)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본 설문조사의 한계이다.

1. 조사자 기본정보

1) 인터뷰

- 1인가구 경험(과거 포함) 있는 여성 15명 인터뷰 진행함.
- 이름은 가명으로 표기함.

이름 (가명)	나이	결혼 여부	1인 가구 기간	직업	설명
서이영	28세	비혼	9년차	취업준비	대학진학을 이유로 서울로 왔다. 가장 큰 고민은 주거와 경제적 독립이다. 20대 내내 이사를 다니면서, '살만한 집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김수연	40세	기혼	10년	프리랜서	10년간 혼자 살다가 최근 결혼했다. 전 직장 동료들과 1인가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지금도 종종 만난다. 현재 하고 싶은 것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민	35세	비혼	3년	교육직	몸의 질병을 경험하면서, 독립만큼이나 함께 살아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혈연가족이 아닌 사회적 가족을 고민한다. 복지제도의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을 꿈꾼다.
이진영	33세	비혼	7년	학생	안정적이지 못한 수입과 높은 주거비가 부담이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학원에 진학했다.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다.

이하은	44세	이혼	6개월	사무직	요가, 무지컬 등 직업 외의 활동이 주는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편과 얼마 전 이혼했다.
박지은	41세	비혼	5년	기타	전라도 근교 시골 빈집에 거주 중이다. 경제적 자원보다는 관계자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촌했다. 현재는 귀촌한 비혼여성 네트워킹이 주 관심사다.
한선희	43세	이혼	5년	교육직	이혼을 졸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제2의 1인가구를 꿈꾼다.
김미선	51세	비혼	3년	사무직	동생과 오랜 시간 함께 살다가 최근 독립했다. 최근 좋아하는 가수가 생겨서 팬질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지금 내가 재밌고 즐거운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미림	60세	비혼	30년	기타	결혼하지 않고 오빠 가족과 살다가, 독립한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 비혼의 이유를 개성이 강해서, 가족을 통해 뭔가를 이루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라고 말한다.
이숙희	92세	이혼	10년	없음	30대에 이혼하고 결혼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에 매진했고, 여동생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함께 가장역할을 했다. 스스로를 결혼에 맞지 않는 성질이 썩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40년지기 친구가 있다.
신희주	44세	비혼	2년	교육직	학원강사라는 일의 성격 상 밤낮이 바뀌는 생활 패턴 때문에 독립했다. 원룸에 살다가 최근 이사했다. 피아노, 우쿠렐레 등 취미로 외로울 틈은 없다.
강은경	36세	비혼	14년	없음	20대에 부모님의 경제적 이유로 인해 혼자 살았다. 뒤늦게 의대에 입학하여 인턴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건강문제로 휴직 중이다.
조은지	46세	비혼	17년	교육직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인해 어릴 때부터 원가족에서 독립하고 신은 욕구가 컸다. 교사로서 학생들과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질감, 연대의식이 높다.
정은희	33세	기혼	5년	대학원생	20대 초반에 독립하여 친척집, 고시원을 거쳤고 친구들과 룸쉐어 경험이 있다. 1인가구에게 주거형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수민	31세	미혼	3년	학원강사	유학 생활 중 1인가구 경험이 있다. 유학 경험 있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자주 느꼈다. 현재 가족과 거주하지만, 주거 공간만 공유할 뿐 각각의 삶을 살고 있다.

2) 설문조사

○ 나이

(단위 : 명, 백분율)

세대	명수	비율
20대	77	54.61
30대	41	29.08
40대	18	12.77
50대	2	1.42
무응답	3	2.13
계	141	100.00

○ 주거형태

(단위 : 명, 백분율)

	명수	비율
월세	84	59.57
전세	28	19.86
반전세	13	9.22
자가	5	3.55
사글세	2	1.42
기타	9	6.38
계	141	100.00

○ 결혼관련

(단위 : 명, 백분율)

	명수	비율
비혼	133	94.33
이혼	5	3.55
기혼	2	1.42
기타(동거)	1	0.71
계	141	100.00

○ 월소득

(단위 : 명, 백분율)

	명수	비율
없음	25	17.73
0~100만원미만	32	22.70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	53	37.59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20	14.18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6	4.26
400만원이상~500만원미만	5	3.55
500만원이상	0	0.00
계	141	100.00

○ 1인가구 유지기간

(단위 : 명, 백분율)

기간	명수	비율
0~5년 미만	75	53.19
5년이상~10년미만	41	29.08
10년이상~15년미만	15	10.64
15년이상	10	7.09
계	141	100.00

Ⅲ. 1인가구여성, 어떻게 호명되고 있나?

1. 1인 가구는 ‘임시적’이다?

○ 1인 가구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단위 : 명, 백분율)

	명수	비율
직장 또는 학교를 위한 이동	85	60
독립에의 욕구	27	19
이혼, 가족 갈등 및 해체	22	16
가족구성원과의 단순 분리	7	5
계	141	100

‘직장 또는 학교를 위한 이동으로 1인가구가 되었다’고 답한 사람이 60%로 가장 많았다.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주거를 분리하게 된 표면적인 계기와는 달리, 다른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이 멀어서라는 피상적인 이유가 있지만, 사실 혼자 살려고 일부러 직장 멀리 잡음.” “대학 졸업 후에도 혼자 살고 싶어서 서울에서 직장 구함.”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고 싶다고 내내 생각은 했었습니다. 집을 경기 쪽으로 옮긴다기에 이때다 싶어 혼자 나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1인 가구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혼자 살게 된 계기도 조건도 모두 다르다. 원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던 결혼 관계를 끝내면서, 혹은 굳이 결혼할 이유를 못 찾아서 등이 그것이다. 미디어나 기존 연구들에서는 젊은 연령층의 직업, 학업으로 인한 이동은 ‘자발적’ 선택이고, 이혼이나 가족 갈등으로 유입된 계층은 ‘비자발적’ 선택이라고 쉽게 분석해 왔다. 그러나 자발적/비자발적 선택이라고 하는 구분의 경계도 모호하다. 인터뷰를 보면 개인마

다 독립에 대한 의지와 이혼, 직장 선택과 가족 불화 등의 원인들이 혼재되어 있다. 개인의 확고한 선택도 아니고 사회 관계망으로부터 고립도 아닌, 각자 다른 사연으로 ‘어쩌다보니’ 1인가구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목표가 굉장히 강했어요. 일종의 장래희망 수준. 부모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너무 억압적이니까 어머니도 되게 불행해보이고…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직장을 잡고 발령을 받자마자부터 월급의 대부분을 적금을 넣어가지고 적금 타자마자 집에서 나왔죠. 가난하고 동생이 세 명이나 되니까 어릴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될 때까지는 집 안에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사생활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열심히 목표를 생각했고 ‘내가 빨리 돈을 벌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란 마음이었어요.

-조은지, 46세, 비혼

이혼하면서 1인가구가 되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이 8년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한 1년 정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잘 안 돼서 이혼을 하자고 말했는데 집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재개발로 묶여있어서 안 팔리는 거예요. 일단 팔려야 뭘 나누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한 집안에 있지만 완전히 독립돼서 서로 말 없이 8년을 살다가 최근에 나오게 된 거죠.

-이하은, 44세, 이혼

혼자 살게 된 계기야 제가 원하는 상대를 못 만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그랬겠지만… 몇 번 선도 보고 만나보고 했는데 서로 원한 것들이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지났고 제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꼭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그래야 되는 게 그냥 싫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있는 걸 택했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좀 아프시고 해서 가족들이 흩어져 사는 형태였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오빠 가족하고 좀 같이 있다가 어느 날부터 독립을 해서 그 이후로는 쪽 혼자서 살고 있어요. -오미림, 60세, 비혼

2. 고소득의 세련된 ‘골드미스’?

○ 다음 보기 용어 중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위: 명, 백분율)

	명수	비율
1인가구	53	37.59
혼자사는 여성	32	22.70
싱글	14	9.93
독립가구주	13	9.22
기타	10	7.09
독거인	8	5.67
혼밥족	7	4.96
없다	4	2.84
골드미스	0	0.00
계	141	100.00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은 ‘1인 가구’라는 용어를 가장 선호한다고 대답했다. 이 용어가 특정한 이미지나 가치 판단을 비교적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의 가구 형태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이할 것은, ‘골드미스’를 꼽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1인 가구 여성은 쉽게 소비족, 골드미스로 환원된다. 인터넷상의 ‘골드미스’를 검색해 보면 “30대 이상 40대 미만 미혼여성 중 대졸 이상의 학력에 연봉 4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이 가능한 전문직 혹은 대기업 사원, 부동산 혹은 전체 자산 규모가 8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여성을 일컫는 말. 이 계층은 자기 성취욕이 높으며 자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등 구매력이 높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 확대의 대표적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 진출 확대’를 꼽는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분석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 여성의 경제 진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성들 대부분 저임금의 비정규직의 위치에 놓여 있다.

설문대상자 중 78% 이상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이다. 서울시 20~30대 1인 가구여성의 월평균소득은 211.7만원이다. (정규직 238.5만원, 비정규직 172.7만

원)2)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여성임금노동자의 40.3%가 비정규직이며, 남성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62.8%, 비정규직 여성은 남성 정규직의 40%에도 못 미친다3). 실제 여성들의 소득 수준이나 열악한 노동 상 지위를 고려하면, 이 용어가 실제 여성들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월 4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여성들조차도 자신을 ‘골드미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용어가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방식, 고소득에 고급스러운 취향과 소비를 즐기는 이미지로 호명되는 것을 당사자들은 거부하고 있다.

사회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었지? 나라에서 해주는 건 뭐 있나?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사실은 보험이라든가 세금 면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소위 말하는 괜찮은 직장 다니면서 자기 생활도 즐기려고 1인 가구를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한선희, 43세, 이혼

제가 120만 원 받으면서 일할 때도 엄마가 “그래도 돈을 모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요. 저는 “엄마, 내가 서울이 아니라 강릉에 살아도 돈은 못 모아.” 말해도 모아야 되지 않냐고 하면 그냥 평행선인거예요. 최근에 tv 다큐에 ‘지옥고’라고 나왔거든요. 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지옥고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룸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원룸도 저보다 조금 좋은 원룸일 뿐이지, 원룸이고 혼자 자식으로 앉아서 공부하고, 고시 준비하는 것 같은데, 혼자 앉아서 공부하고 뒤에서 요 깔아놓은 데서 자고 이런 느낌인데, 그 분이 했던 얘기를 봤거든요. 자기는 그래도 집에서 원룸도 지원해주고 공부할 돈도 주니까 금수저 아니냐고. 그걸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금수저 그럴 때 쓰는 말 아니잖아요. sns에서 혼자 원룸에서 사는 사람이 식비로 한 달에 60만 원을 썼는데 이걸로 막 논란이 되더라고요. 낭비다, 낭비 아니다 하면서. 사실 뭘 먹는지에 따라서 그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밥버거 사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비참한데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아요.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가족정책포럼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자료집, 12쪽

3) 통계청, 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예전에 일했을 때 월급이 너무 적어서 월세비가 1/4이 나가는 느낌이었던거ですよ.
 월세 내는 날만 돌아오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저한테 큰돈이니까 널 생각하면
 부들부들. 그러면서 ‘아 진짜 내기 싫다’, ‘왜 나는 원룸에서 살지?’ 속상해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익숙해진 느낌이 있어요. 받는 돈이 줄어드는데. 사는 곳
 은 더 안 좋고 돈은 별 차이 없고. ‘집 같지도 않은 곳에서 내가 이런 돈을 내
 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이영, 28세, 비혼

3. 혼자 살면 위험하다?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해 특히 ‘위험하다’는 담론이 강조된다. 미디어에서는 여성을
 타겟으로 삼는 범죄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험한 환경
 이 만들어지는 조건이나 불안의 이유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않는다.

○ 혼자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다면 보기 중 무엇인가요?

(단위 : 명, 백분율)

	명수	비율
성범죄	61	43.26
가난, 질병	23	16.31
강도, 상해	20	14.18
불안하다고 느낀 적 없다	16	11.35
고립, 고독감	16	11.35
기타	5	3.55
계	141	100.00

○ 불안감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단위 : 명, 백분율)

	명수	백분율
뉴스,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소식을 접해서	41	32.6
사회복지시스템 미흡	27	21.4
옥탑방, 반지하, 어두운 골목길 등 주거환경으로 인해	24	19
실제 경험이 있어서	15	11.9
소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10	7.9
기타	9	7.2
계	126	100.00

여성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위협은 ‘성범죄’였다. 하지만 불안감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미디어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40%를 웃돈다. 성폭력 공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는 막연하게 불안감을 부추기는 사회적 담론에 의해 형성된 측면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시스템 미흡’과 ‘주거환경의 문제’라고 지적한 사람이 합쳐서 40%에 달한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불안감을 달래거나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의미한다. 특히 범죄 발생 가능성은 주거지역의 환경이나 주거 형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4. 혼자 살면 비참하다?

1인가구여성을 검색하면, 소비시장의 새로운 대세, ‘큰손’이라며 추켜세우며 마케팅의 대상으로 보는 동시에 빈곤과 고독사 사례를 열거하며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한 기사가 함께 쏟아진다. 상대 빈곤율이 47.6%에 달하고⁴⁾, 건강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빈곤통계연보’. 1인가구의 상대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아래인 가구)은 2006년 40.6%에서 2014년 47.6%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다인가구 상대빈곤율은 13.7%에서 12.8%로 낮아졌다.)

상태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⁵⁾ 쪽방에서 홀로 식사하고 있는 노인의 사진과 함께 “비혼·가족해체로 독거중년…실직까지 겹쳐 ‘무너지는 삶’”이라는 제목을 단다.⁶⁾ 1인가구, 특히 고 연령층의 여성들이 실제 직면하고 있는 위험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고독사를 언급하며 극단적으로 불안을 강조면서 방조에 가까운 미디어의 태도이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고독사를 혼자 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비극적 결말로써 다룬다.

흔히 혼자 살면 비참하거나 외로울 것이라는 전제는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언어이다. 여성들은 이미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다. 인터뷰이들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혼자라는 감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외로움은 혼자 살아서가 아니라 함께일 때도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친척들 모임 가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일단은 안타까워하죠. “네가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못 하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이 강해서 혼자 산다는 생각이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고, 걱정들을 많이 하죠. “늙으면 너 혼자될 텐데.” 불쌍하게 보는 것 있잖아요. 그게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외롭지 않니?”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외로워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만 해도 힘들고 바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야지.” “좋은 남자 만나야지.” 이러면서 되게 불완전하게 보잖아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김수연, 40세, 기혼

외롭냐고 주변에서 물어보는데 그건 혼자 살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절대적인 어떤 외로움 같은 것 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안 느낄 수가 없지 않을까요? 뭐 그런 외로움은 느낀 것 같아요. 혼자 살아서 외롭다고 느낀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김미선, 51세, 비혼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 2016. 우울 의심률 항목에서 1인 가구는 27.2%로 다인가구 8.8%보다 3배가 넘는다. 혼자 사는 중년(40-64세)의 만성질환감염률은 64.8%로 다인 가구 44.0% 보다 높다. 청년층 1인 가구의 흡연율은 32.9%로 다인 가구 19.3%보다 높으며, 음주율은 82.1%로 다인 가구 음주율 67.9%보다 높다.

6) 한겨레, 2016.9.28.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63249.html>

○ 다음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인가요?

(단위 : 명, 백분율)

	가족 및 친인척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요청 할 사람 없음	기타	계
외로울때	7 (4.96)	117 (82.98)	2 (1.42)	0(0)	8 (5.67)	7 (4.96)	141 (100)
몸이 아플때	44 (31.21)	68 (48.23)	3 (2.13)	0	16 (11.35)	10 (7.09)	141 (100)
병원에 입원해야 할때	85 (60.28)	39 (27.66)	2 (1.42)	0	8 (5.67)	7 (4.96)	141 (100)
돈이 필요할때	88 (62.41)	31 (21.99)	0	0	14 (9.93)	8 (5.67)	141 (100)
이사갈때	61 (43.26)	53 (37.59)	1 (0.71)	0	15 (10.64)	11 (7.80)	141 (100)
법적 소송이나 공적갈등을 처리할때	59 (41.84)	37 (26.24)	9 (6.38)	1 (0.71)	18 (12.77)	17 (12.06)	141 (100)

외롭거나 아플 때 의지하고 찾는 사람은 ‘친구’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1인가구여성들은 정서적으로 ‘친구’라는 관계망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한편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때처럼 ‘공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도와줄 대상으로 가족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 6%~13%나 되어,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친구가 먼저 살고 있던 집에 제가 들어간 건데, 처음에는 월세의 반을 내겠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일본어 가르치는 일이나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괜찮을 줄 알았던 몸이 계속 아파서 월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도 “그러면 난 어차피 혼자 내고 있던 돈이니까 혼자 내겠다. 형편이 되면 되는 만큼만 줘.” 그래서 한 달에 월세 5만 원 정도 주고 대신 전기세랑 가스비를 내가 내겠다고 했어요. 제가 1인 가구였다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급한 건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고민도 얘기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 했던 다른 해결안을 친구가 얘기해주기도 하니깐, 정말 중요한 건 친구, 우정의 연대구나. 책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현실에서 많이 겪은 거 같아요.

-김정민, 35세, 비혼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 40년 됐어요. 나이는 좀 어린데, 그 친구도 나랑 비슷하게 결혼 2년 만에 이혼하고 지금껏 혼자고, 지금은 경산에 조카랑 있어. 몸이 좀 안 좋아서 주로 전화통화만 하는데, 3년 전만 해도 일 년에 두어번 꼭 날 찾아왔어요. 배낭에다가 고추장이나 막장이나 참기름, 깨 넣어서 짬뽕하고 와요. 그럼 나는 또 고마우니까 차비하라고 10만원씩 주고. 얼마 전에 내가 쓰러져서 입원했을 때 연락 안 되서 걱정 많이 했다고. 어저께도 전화 왔어요. 괜찮냐고. 본인도 몸이 안 좋으면서 그렇게 내 걱정을 해요. 내가 성질이 못 되서 대인관계가 넓진 않지만 이런 친구도 있고 운이 좋죠. 인덕이 있어요.

-이숙희, 92세, 이혼

5. 미완성의 존재?

여성들에게 독립이 어려운 이유도 독립이 절실한 이유도 모두 사회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개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생활 존중에 대한 감각이 낮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은 언제나 ‘보호자’가 필요한 연약하고 미숙한 존재로 간주되며, 특히 남성을 동반하지 않는 여성은 더 ‘쉬운’ 존재로 여겨진다. 심지어 ‘혼자 살면 남자들이 좋아하겠네.’, ‘누구 소개시켜줄까?’, ‘너무 까다로워서 결혼 못하는 거 아냐?’ 등등의 일상을 침해하는 말들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뷰이들은 이에 위축되지 않고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거나,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힘을 강조한다.

집주인과 수시로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방세 낸지 확인 하는 것과 집 고장 난 것 얘기하는 정도의 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집주인들이 안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에어컨 단다고 갑자기 집 문 열려고 해서 놀란 적도 있고요. 그럼 미리 알려줘야 하는데 안 그러고 그냥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사생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무슨 의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좀 우습게 여기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친구 데려오지 말라 그리고, 담배는 피우지 말라고 할 수 있는데 남자도 데려오지 말래요... 약간 자신을 보호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이영, 28세, 비혼

여자 혼자 산다는 건, 남자 집주인 대하고 할 때 좀 우습게 보여 지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일러 고장이 났을 때, 그 수리비를 제 돈으로 우선 냈어요. 집주인이 해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선 했는데 그 돈이 제가 되게 급해서 전화를 하고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하더니 오빠가 전화하니까 바로 주는 거예요. 나는 좀 기다리게 하거나 우습게 봐도 되는 약한 존재인 거예요. 남자가 아니니까 내가 우습게 보이나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또 내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속이려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었어요. 부동산에도 집 보러 다닐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에이 아가씨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정도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혼자 산지가 몇 년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럴 땐 더 따박따박 말하죠. 착하게 살고 싶는데 그렇게 안 놔둬, 나를. 나를 우습게보니까 그렇지.

-이진영, 33세, 비혼

사생활 문제가 힘들었어요. 동료들 중에는 약간 저를 여동생이나 딸처럼 생각하고. 부모님을 떠나왔는데 수많은 시어머니가 생긴 느낌인 거예요. 친밀감의 표현이겠지만 약간 제 생활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학교에 있으니까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전화 와서 ‘내가 반찬을 해서 주려고 했는데 왜 불이 이제 켜지냐’ 뭐 이런 거요. 혼자 있으니까 아무 때나 찾아와서 밥 사준다. 뭐 한다 하면서… 아 이게 불편하구나, 그런 생각 들어서 지금은 직장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고 있죠. 저 분은 나에게 호의이고 친절인 거예요. 여동생 같아

서 챙겨주고 딸 같아서 챙겨주는 그런 건데 나는 싫은데 단호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이제는 일련의 몇 건의 사건을 겪고 나서는 ‘저는 싫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못 되게 얘기하죠.

교회에 가면 “너 루즈 안 바르고 집 밖에 나오는 건 똥구녕을 내 놓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래도 참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네가 교사라는 것 빼고 내세울 게 없잖아. 눈을 낮춰라, 내가 지금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소개시켜주려고 말을 꺼내면 “아 지금 남자 소개시켜주려고 하시는 거죠? 저는 제가 지금 제 생활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말 얘기 꺼내시기 전에 저 같게요.” 이렇게 대꾸 하죠....

-조은지, 46세, 비혼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혼자 산다고 그래서 가엾게 여기거나 만만히 보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있잖아요. 혼자 살면 쉬운 여자처럼 보이는 것. 지금 회사에서도 조금 재수 없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여자를 얕보거나 그런 남자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그 남자한테 눈빛만으로 ‘나한테 말 걸면 죽여 버리겠다.’ 그런 눈빛을 하루 종일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바로 옆자리인데도 말을 안 해요.

-이하은, 44세, 이혼

자기 자신을 자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냥 ‘혼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잘못이 아닌데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위축을 느끼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움직여서 내 힘으로 살고 있는데. 다른 이웃의 눈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미림, 60세, 비혼

30대 중반 이때쯤 넘어가면서는 부쩍 ‘무슨 결함이 있어서 결혼을 못 했나?’ 아니면 ‘어떤 과거의 사연이 있어서?’ 그런 표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꼭 말로 안 해도 느낌으로 알겠더라고요. 여자들은 대부분 많이 부러워해요. 자기도 “그 때 알았더라면 나도 결혼 안 했을 텐데.” 그러기도 하고… 남자들은 진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 퇴근을 조금 빠르게 할 때는 “집에 남자 있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되게 무례한 얘기거든요. 그냥 “맞아요, 있어요. 요일마다 다르죠.” 이런 식으로 오버해서 얘기를 하면 다시는 그런 말 안 하죠. 더 세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노련해야 되는 거고 웬만큼 사이가 가깝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물어봤는데 막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꾸 생각하면 좀 화가 나기도 해요. 사람들이 자꾸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거나 그럴 땐 오랫동안 앉아서 얘기해주고 싶을 때도 있긴 해요. 그런데 많이 겪으면서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때는 제가 너무 행동에 제약이 많았어요, 자꾸 나를 설명해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그게 아닌걸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의식을 해서. 요즘은 나이가 50되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잘 다 받아 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혼자 사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김미선, 51세, 비혼

시선을 자기한테 돌리라고 해보고 싶어요. 시선 밖에 가 있잖아요. ‘내가 괜히 혼자됐다고 나 무시하는 것 아냐?’ 자꾸 밖에서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나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 선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건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잘 꾸려나갈 수 있는지 나와 자꾸 타진을 해봐야 되는데 내 시선 조차도 밖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면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 없다. 너무 그 시선들을 내가 계속 세면 힘들어 지는 거죠. 정작 들여다봐야 되는 건 나니까 나에게 말하곤 해요. ‘너만 생각해. 괜찮아. 이기적이어도 괜찮아.’

-한선희, 43세, 이혼

Ⅳ. 1인가구여성, 이렇게 살고 있다.

1. 세계의 확장

오랜 기간 혼자 살았던 경험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혼을 통해 강고한 틀 속에 살았던 자신을 반추하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거 없는 낙인에 대해 깊게 이해하기도 한다.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꼬리표가 진실이 아니듯, 타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무지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이다. 이 공간은 어떤 가능성과 힘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혼이라는 걸 통해서 시야가 넓어지고 사람들의 다양성이 좀 더 많이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이혼을 전후로 나눠보면 그 전에는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세상만사 다 너무 예뻐 보였는데 극단적으로 이혼하고 나니까 ‘나만 편한 게 다가 아니구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게 그게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복여부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편함보다 불편함이 일단 없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그러다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단정 짓거나 얘기할 거리가 아니구나. 그 사람도 말 못 할 사정이 있었겠구나,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 번 결혼이라는 정해진 틀에서 쏙 나와 버리니까 옛날에 혼자 있었을 때의 세상하고는 또 달리 보이더라고요. 틀 안에 갇혀 봐가지고 그런가? 좋은 싫든 간에 틀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내가 만든 틀도 있고 가족이라지만 낯선 사람들이 묶이는 틀도 있고 사회가 결혼한 사람에게 주는 틀도 있으니까. 그 안에 있다가 탁 나와 버리니까 안에서 있었던 구속력이라는 게 생각까지도 좁게 만드는 거구나, 그런 게 나와 보니 오히려 넓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 한선희, 43세, 이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조언해줄 수 있고 방패막이가 돼줄 사람이 없을 때의 그 막막함, 두려움… 그런 것들을 내가 혼자 살면서 느꼈기 때문에 조카아이의 마음이 어떨지 매 순간에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조금은 공감할 수 있거든요. 그냥 먹을 것만 먹이는 것보다 저 아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 같은 걸 없애주지 않으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회가 결국은 여성들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사회가 돼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참 안타까워요.

- 오미림, 60세, 비혼

고등학생 아이들 볼 때 가끔 트랜스젠더인지 게이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가 있는데 반 남자애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다른 교사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유 그래 그 반 애들 장난이 심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지나갈 때 있어요. 또는 아이들이 연애할 때 여자애가 데이트폭력 같은 걸 당한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뭐, 지가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하고 공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경우가 많은 게 가정 수업이다 보니 털어놓거나 이야기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빨리 감지하게 되는 점도 있고 성폭행 당하고 그런 경우, 저한테 털어놓는 경우가 조금은 있죠. 해결을 해주진 못하고 양심에 찢리는 일도 되게 많았어요. 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하는 느낌이 드는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되지만 옛날에는 법이 없었을 때는 애한테 살짝 떠보지만 애가 털어놓지 않는 한 신고할 수도 없고 한 일들… 그 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지나쳤던 게 좀 있었죠. 올해도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남자애한테 여자아이처럼 행동하니까 애들이 놀리기도 하면서 약간 성희롱을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작년에 괴롭힘 당한 애는 자퇴를 했고 올해는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족관계나 사회에서 겪었던 몰이해나 폭력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는 건 있죠. 혼자 살게 된 계기가 아버지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 그리고 어릴 때 봤던 가난하고 불행한 여자들의 모습 때문이거든요.”

- 조은지, 46세, 비혼

2. 취미, 자기에 집중하기

저소득, 불안한 노동 조건 속에서도 1인가구여성들은 자신을 지키고 삶의 에너지를 얻는 자원으로서 취미를 중요하게 이야기했다. 1인가구여성들에게 개인적인 기호와 취향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고 본인을 설명하는 서사이면서 동시에 오롯이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

50년 만에 요즘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어요. 살면서 가수를 좋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런 거 한 번도 없었는데 요즘 광진원이란 가수가 너무 좋아서 팬카페에도 가입하고. 엄청 열심히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콘서트하고 있거든요. 콘서트도 그저께 수요일 날 갔었고, 일요일 것도 하나 더 예매 해놨어요. 그리고 소설책을 좋아해요. 너무 어려운 책 그런 거 말고 소설책 같은 것 좋아하니까 두꺼운 것, 대하소설 이런 것들. 항상 집에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으니까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것. 되게 든든해요. 어디 나갈 때도 책 한 권 갖고 나가야지 아니면 힘들어요. 왜냐면 혼자 지하철을 타도 오랜 시간 타게 되면 그냥 멍뚱이 있는 것보다 책 읽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도, 아플 때도 괜히 꺼내가지고 읽어가지고. 그런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것처럼 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혼자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김미선, 51세, 비혼

제가 결혼하지 않은 것은, 가정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유익한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그런 생각들이 좀 컸어요. 다른 이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뭘 찾아서 읽는다거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게 되니까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 아침 신문을 봤더니 어린 여학생들이 생리대 살 돈이 부족해서 수건을 깔고 있더라,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벌어서, 학생들에게 생리대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의 꿈이고. 꿈이지만 노력을 해보고는 싶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 오미림, 60세, 비혼

3. 현재의 삶을 경영한다는 것

개인보다 집단과 헌신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혼자 살아온 경험이 주는 메시지는 크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식주가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현재의 즐거움을 유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싱글 침대를 계속 썼거든요. 그러다가 퀸 사이즈를 샀어요. 무슨 생각으로 샀냐면,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난 이걸 사겠다.' 그 욕망을 자꾸 유예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돌이켜서 보니까. 너무 많은 즐거움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유예하는 것 있잖아요. '이건 결혼하면 해야지.' 여행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을 미루면서 살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김수연, 40세, 기혼

혼자 사는 것은 자신의 삶을 경영하는 거잖아요. 나의 집을.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 자유를 경험했을 때는 이것저것 많이 사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결론은 세제 류도 종류별로 필요 없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가루비누를 샀다, 그럼 그걸로 저는 욕실청소, 바닥청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순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을 좁은 공간 안에 늘어놓으면 사람이 활력이 떨어져요. 되도록 마트에서 상술에 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허락하는 한 좋은 물건을 많이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쇼핑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밥그릇도 이것 사봤다가 저것 사봤다가... 때우듯이 살지 말고 꼭 비싼 것들을 사서 쓰시라는 게 아니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사는 건 결국 의식주잖아요... 생활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게 되게 장기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웃긴 말이긴 한데, 나의 모습을 내가 상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화려한 곳에 살진 않지만 이렇게 나를 아끼는 나...'라는 이미지요. 밥을 제대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의 생활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정리도 잘 하고 그게 귀찮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에너

지가 너무 많이 직장에 소모해서 그런 부분을 추스르기가 너무 힘들고, 막 하다가 지쳐서 퍼지고 그러긴 하는데 그런 단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일상이 잡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돌보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자유롭기도 하지만 굉장히 막 살기 좋거든요. 주말에 놀지 말란 말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아요. 허무에 빠지지 않은 방법.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좋은 물건들 가지고 깨끗하게 생활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집안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적당히 만나기도 하고. 저는 진짜 그걸 안 했거든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젊을 때 많이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고 그런 게 좋겠단 생각이 들어요.

- 김수연, 40세, 기혼

4. 삶의 유동성을 이해하다

삶이 결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유동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예측하지 못한 순간이 닥쳤을 때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이라고 주어지는 생애 주기 과업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유연함이기도 하다.

저는 계획을 세우고 그런 타입이 아니라서,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그 때 그 때 잘 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다 결혼할 때도 저는 별로 아쉽고 혼자 초조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나는 지금 그대로 사는 게 좋고. 만약 미래를 계획한다면 더 재미있게 사는 방법? 이런 생각은 해요. 일을 해도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동안 한 일은 내가 즐겁다기보다는 먹고 살려고 한 일이 많잖아요. 만약에 내가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는 짧게 일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김미선, 51세, 비혼

20~30년의 후의 삶들을 계획해서 거기에 맞춰 딱딱 산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몸이 아프거나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불완전한 상태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뭘 기다리지?’ ‘왜 나는 계속 언제가 되면, 언제가 되면’ 이래야 되는 거지? 싶은 거죠.

-박지은, 41세, 비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계기로 내가 즐겁게 사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책장암이셨는데 정말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본 거잖아요. 침대에 그렇게 누워있는데 ‘사람이 아니구나. 인간성이 말살되는구나. 말살 된 후에는 인간이 아니구나.’ 암 병동의 그 분위기, 죽어가는 모습들 그런 것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엄마는 더 심했겠죠, 간병을 하셨으니까. 그 때 이후로 오빠랑 표현은 안 하는데 상처 받은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 탁 났다고 해야 하나?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는데, 나도 사람이니까 언젠간 죽어,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대학원을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이진영, 33세, 비혼

V.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스템

1. 1인 가구 증가로 저출산이 위기다?

○ 최근 1인가구가 급증 (1980년 5% → 2015년 27%)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중복답변 가능)

(단위 : 명, 백분율)

	명수	비율
결혼관과 가족관의 변화	83	46.37
학업, 직업의 유동성 증가 및 수도권 집중 등	37	20.67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	33	18.44
소득·고용불안정 등 경제적 이유	22	12.29
모르겠다	4	2.23
계	179	100.00

1인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은 ‘결혼관과 가족관의 변화’였다. 주관식으로 제출된 구체적인 답변들을 보면, 결혼과 가족제도 내에서의 불평등, 여성에게 특히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가정 내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결혼이 여성에게 너무나 불리한 시스템이라는 것, 일과 가사노동 전담,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하기도 혹은 병행하기도 불가능한 이중 노동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여성들은 이미 파악하고 있고, 이는 결혼 제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포기’이면서 동시에 ‘선택’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결혼제도 내에서 여자의 부담이 너무 큼 (예 : 육아, 남성중심적 시부모의 의식, 취미생활 조차 할 수 없는 가사부담 등)”

“결혼의 메리트가 없음. 시대, 독박육아 등”

“여성들이 비혼의 즐거움과 자유를 알게 된 게 아닐까. 남편과 가정의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족 내에서 좌절 경험, 결혼이 미래를 위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여성들의 자각”
“세상은 변하는데 남성들의 문화지체 현상이 심각해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게 됨”

여성이 아무리 일을 해도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남성들의 사고는 여성들에게 더 이상 결혼을 ‘남만화’하지 않는 현실적인 깨달음을 선사한다. 인터뷰 중 가장 많이 등장한 “뒤치다꺼리”와 “의식 개조”라는 두 단어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자신들이 노동을 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가사노동 영역에 너무나 무지한 ‘문화적 지체’ 속에 머무르고 있고, 여성들은 가족 내 불합리성과 부정의를 겪으면서 남성이 어떻게 길러지고 의존적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저출산 담론은 결혼 ‘안’하는 여성 대 결혼 ‘못’하는 남성이란 구도로 쉽게 대치시킨다. 경제적 상황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청년 남성에게는 신혼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하고, 결혼 ‘안’하는 여성에게는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 저출산의 주범으로 1인 가구 여성을 겨냥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 전후관계가 뒤바뀐 안이한 인식이며, ‘이기적’이라는 담론에 의한 낙인과 압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저는 결혼해서 이혼한 게 어떤 면에서는 졸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정리해보니까 내가 결혼이라는 시스템에 잘 맞지 않았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책임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각자가 성인으로서 만났으면 각자 영역에 대해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알아서 못 할까 왜 내가 저걸 내가 해줘야 되는 건지 답답하고요. 현실적으로 여자들이 뒤치다꺼리 하게 되고. 제 전남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살던 세상이 남성중심이니깐 여자가 당연히 집안일을 해야 되고 남자는 이래도 괜찮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만 집안일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안 해주면 그것에 대한 트러블이 생기고.

가사분담을 아직도 남성들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계속 나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식 개조까지 해가면서 산다는 게 두 배의 힘든 일이에요.

- 한선희, 43세, 이혼

친구들을 너무 비슷한 애들만 사귀어서 (나도) 그런가? 한 명은 절대적인 비혼을 주장하고, 한 명은 남자친구는 있는데 딱히 결혼을 할 생각은 없어 보이고… 때 되면 할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 한 명은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자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개는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언젠간 결혼해야지’하는 생각을 하는 애였는데 고양이 두 마리를 기르면서 “너도 고양이나 길러. 남자 따위 뭘 필요 있냐?”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우선은 결혼 했을 때의 그 상황 있잖아요. 남자는 일만 하고 와서 집안일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고, 가사 분담 전혀 안 되는 상황을 제가 못 견딜 것 같고 남자에 대한 좋은 경험이 없어요. 연애했을 때나 상사나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저런 남자들 밖에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해?’ 이런 느낌… 내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남의 뒤치다꺼리 다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 이진영, 33세, 비혼

결혼을 하면 뭐해요? 내 같은 사람은 결혼하면 안돼요. 요새사람들 그래서 다 시집안가잖아요. 다 똑똑하니까. 바보 같은 옛날 사람이야 여자는 시집안가면 안된 다카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유니까,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도 남자라 하면 고개를 내돌리고… 결혼할 필요가 없어. 고생문이 흰해요. 사랑은 잠시고 고생은 길어요. 나도 결혼하기 싫었지만 부모가 시켰으니까 할 수 없이 갔지 뭐…

- 이숙희, 92세, 이혼

내가 합법적으로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결혼 말고 없었거든요. 절대 독립을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건 또 다른 게 결혼하면서부터 시댁이 싫었어요. 결혼 준비할 때부터. 처음에는 그냥 불만사항으로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그런 거 얘기할 때 그걸 변호하는 남편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어머니가 잘못을 한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 현명했으면 좋았겠다는 미안함은 있어요, 후회는 아니고요, 그렇게 돼서 결혼을 유지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아니라 그 때 조금 현명하지 못 했던 것 자체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이하은, 44세, 이혼

예를 들면 부엌에 가는 길목에 빈 컵이 놓여있으면 가는 길에 갖다 놔야지, 이게 맞는 생각인데 대부분 남자들이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남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소소한 것으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결혼 초창기에 남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며칠 딱 일찍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항상 새벽 12시, 1시, 2시였어요, 항상 5일 내내. 그 전에도 패턴을 알고 있었는데 결혼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는 문 닫고 나가는 순간 남이라고 생각해라.” 뭐 농담이라고 한 것이긴 하지만 그 얘기를 공공연하게 남자들은 한다는 거예요. ‘관심 갖지 마.’ 문 닫고 출근하면서 올 때까지는 내가 뭘 하고 다니든 뭘 하든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한선희, 43세, 이혼

옛날 말이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이가 서 말이고 여자는 은이 서 말이라고. 여성들은 혼자 살아도 자기를 세우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성들은 그냥 주위에서 들은 바로는 희한하게 제대로 못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늘 의존적인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날 밥도 밖에 나가서 사 먹어야 하고.

-오미림, 60세, 비혼

2. 혼자일 수도 함께일 수도 있다.

○ 미래에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계획)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중복답변 가능)

(단위 : 명, 백분율)

	명수	비율
특정하지 않음	50	35.21
없음	34	23.94
애인	32	22.54
친구	9	6.34
반려동물	7	4.93
공동체	6	4.23
기타	4	2.82
계	142	100

② 이유 (중복답변 가능)

(단위: 명, 백분율)

	명수	비율
정서적 유대감과 안정감	39	46.99
외로움이나 노년에 혼자 있는 두려움	17	20.48
경제적 이유 및 생활의 편의	14	16.87
안전에 대한 불안감	5	6.02
가사노동 부담	4	4.82
결혼	4	4.82
계	83	100.00

미래에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된다면, 누구를 상상할까? 가장 많은 대답은 그저 ‘마음이 맞는 사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같이 재밌게 살 수 있는 사람’ 등의 대답이었다. 꼭 애인, 친구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1인 가구일 것이라고 단호하게 ‘없다’고 대답한 사람도 24%이다.

1인가구는 단지 결혼 전에 잠시 거쳐 가는 ‘임시 상태’이거나, 혹은 확고하게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나누기에 적합한 존재와 함께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다.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는 결혼과 가족 관계로는 외로움이나 불안을 해결할 수 없고 유대감이라는 욕구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군가와 함께 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누구나 혼자될 수 있기 때문에, 가구 형태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다원적이다. 여성들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도움을 주고받고 의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형태나 관계를 상상하고 시도하고 있다.

아무리 호적상의 가족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제도와 현실의 갭은 분명히 있잖아요. 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사실은 다 따로따로 살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특히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옆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같은 곳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가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호르몬 이상 때문에 한 5년 정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반대로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법, 같이 지내는 법을 배웠어요. 독립성, 자주성, 고유의 개성 이런 것만큼 같이 살아가는 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프면서 배우게 된 거죠. 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재정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걸 해봤으면 그 다음에는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사심 없이 도움을 베풀고. 그런 걸 친구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김정민, 35세, 비혼

내가 뭔가 의논하고 싶거나 아니면 뭘 하고 싶은데 혼자라서 못 한 적 많아요. 그리고 의논할 상대가 없으면, 내가 살아가면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게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거죠. 내가 못 보는 걸 다른 사람은 볼 수 있는데, 나는 당장 해결하려고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 실수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함께 얘기해주고 서로 의논해주고, 또 내가 굉장히 힘들 때나 기쁠 때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미림, 60세, 비혼

자주 모이는 직장동료모임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나중에 노처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며칠씩 소식이 없으면 연락해 보고, 만약 혼자 아파서 누워있거나 하면 119를 대신 불러주거나 가서 서로 돌봐주면 어떨겠냐고.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회사를 다니더라도 안부를 체크하자. 저는 고립돼서 혼자 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같은 직장 안에서 1인 가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지가 되어주는 부분이 있었죠.

-김수연, 40세, 기혼

저는 아버지에게도 가끔은 “자식이 20살이 넘으면 따로 사는 거 너무 정상이고 같이 살 형편이 돼도 같이 안 사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은 거다.”라고 말해요. 모든 정신과 상담의 뿌리가 그런 거잖아요. 가족관의 유착 관계. 잘못된 유착 관계. 같이 살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빨리 헤어져야 살아가는 세계가 확장되지, 언제까지 가족의 구조 안에서 지지고 볏고 울고 싸우고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러면 너무 협소한 관계망 안에서 한 사람 인생이 거기 맞춰지게 되니까... - 김정민, 35세, 비혼

3. 정책의 부재

○ 알고 있는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제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단위: 명, 백분율)

	명수	비율
아는 것 없음	115	81.56
안심택배	8	5.67
공공임대주택	7	4.96
안심귀가서비스	6	4.26
홈 방법 서비스	5	3.55
계	141	100.00

81% 이상이 복지 제도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대답했다. 얼마나 시스템이 빈약하고 부재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나마도 안심택배나 안심귀가서비스, 홈방법 서비스 등 ‘여성특화’ 정책들은 ‘성폭력 예방’에만 치우쳐져 있다. 문제는 성폭력이라는 위험에 노출된 여성이 아니라, 그러한 공포를 낳는 사회 시스템, 여성을 쉬운 범죄 대상으로 보는 인식과 주거 공간에서조차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 방법서비스나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같은 조치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요구한다고 답했다.

위 제도 중에서 실제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오직 5명만이 답했다.

임대주택 관련 2명

- 실제 임대주택은 신혼부부, 한부모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서 1인 가구는 지원할 임대주택이 극히 적었다
- 저렴한 월세는 만족하지만, 주방이 분리되지 않고 베란다도 없는 최소한의 조건만 갖춘 원룸임.

홈방범 서비스 2명

- 월 9,900원에 사용했었는데 이사하면서 옮기는 비용이 너무 비싸 해지했어요.
그 후에 다시 알아보니 제도가 없어졌더라고요.
- 조건이 까다로워서 신청 못함.

안심귀가서비스 1명

- 경찰이 역이나 자취집까지 동행하는 서비스였는데 훨씬 안심되었다.

VI. 제언

1. 최저주거기준이 아니라 적정주거기준이어야 한다.

○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ex.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이라고 가정 했을 때, 만들고 싶은 1인 가구 정책이 있다면? (중복 답변)

(단위: 명)

정책	내용	명
주거 관련 정책	적정주거기준 마련 및 주거 환경 개선, 전월세자금 지원 및 전월세상한제, 1인가구 임대주택 확대 등	50
안전 관련	치안, 방범 강화, CCTV가로등확대	29
커뮤니티 관련	공동 주택, 공동 마을, 1인가구 협동조합, 생필품 및 식료품 나눔 등	23
의료 관련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긴급의료지원	15
경제적 지원	기본 소득제, 생계비 보조금	9
기타	세금 혜택, 생활 정보 제공, 여성 집수리 기술자 양성과 방문관리, 성평등 교육	7
계		133

1인가구여성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원하는 정책은 단연 주거 관련 정책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내용이 원룸, 반지하 같은 열악한 주거 형태에 관한 것이었다.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조차 유지가 어려운 질 낮은 주거 환경, 1인 가구에 게는 원룸 또는 평수를 한정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부터 민우회가 만난 여성세입자들은 스스로를 ‘주거 난민’, ‘집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거 불안은 삶 전반의 안정성을 뒤흔들고 있다. 당시 한 인

터뷰이는 “세입자는 삶의 안정감 같은 감각을 경험할 수가 없다. 마치 비정규직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원룸이라는 주거 형태는 1인가구를 잠시 머물다 떠날 임시적인 존재로 위치시킨다. 반지하에서 옥탑으로 이어지는 주거 경험기에서, 방범창이나 잠금장치가 미비하고 곰팡이가 피고 빛이 들어오지 않고 물이 새는 등의 이야기는 이제 너무나 익숙한 것처럼 들린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한 현실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적극적 세입자 보호법 제정과 함께, 적정주거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단 주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특히나 35세 이하의 나이인 분들은 직장 에서 경력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연봉도 낮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국가에서 안정적인 주거 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질이 낮은 주거환경에서 사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계속 20-30대들이 반지하, 고시원, 옥탑 이런 데 살다보니까 좋은 질의 삶을 경험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김수연, 40세, 기혼

원룸은 사람 몸이 오래 앉아있을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공간이 작으니까 억지로 끼워 맞춰 배치한 듯한 그런 느낌의 구조가 많잖아요. 화장실 변기에 앉기도 힘들 정도로 좁다든가, 아니면 창문이 있어봤자 해도 잘 안 드는 곳도 많고. 사실 환기도 안 되는 데 많고, 그런 데는 빨래 널어도 마르지도 않고 겨울에는 너무 춥거나, 환기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많고 하니까. 왜 이런 걸 돈 받고 빌려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잠만 자는 게 무리가 없는 거지, 혼자 산다는 게 잠만 자는 게 아닌데. 최소한 잠을 자려고 눕는 공간하고 일어나서 앉아서 있을 공간이 약간은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집 상태가 안 좋을 때는 화가 나죠. 장마철에 잠깐 집 비웠더니 곰팡이가 벽에 생겼어요. 그런 걸 처음 겪어본 거예요.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돈을 그렇게 받는단 말이야?’ 이젠 뭐까지 짜증 나냐면,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어디서 그렇게 침 뱉는 소리가 나는지... 더럽잖아요. 집을 엉망으로 지어서 피해는 받는 건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싸움은 또 그 사람들 끼리 하잖아요.

-서이영, 28세, 비혼

2. 가족보다 개인으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 역할을 대부분 '가족'이 감당해 왔고, 그 가족 안에서 여성들의 돌봄 노동으로 지탱해 왔다. 하지만 최근 20~30대 여성들의 1인가구의 급증은 그러한 가족주의 시스템이 한계선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부부-아이라는 가족 중심의 정책은 더 이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른바 '싱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여성을 가족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법적 가족이 없거나 청년 또는 노인이거나 하는 '특정 조건'을 갖춰야만 복지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 안에서 사람들은 누가 더 약자인지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별방식은 필연적으로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킨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거나 이혼을 하게 될 수 있고, 실업과 동시에 경제적 타격을 입기도 하고, 법적 가족 제도와 관계없이 살아가기도 한다. 복지 제도는 누구나 아프거나 가난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의료 현장 역시 마찬가지다. 수술을 받을 때 혈연관계의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야한다든지, 입원 시 당연히 보호자가 있다는 가정 하에 구축된 시스템은 가족이 없는 사람을 배제시킨다. 현재 국내 161개 병원에 도입되어 있는 '보호자 없는 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과 같은 제도가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주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특히 35세 이하의 1인 가구들에게 국가에서 주택을 제공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지원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행복주택? 이런 게 대부분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잖아요. **신혼부부에 한정하지 말고, 결혼 안 하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키우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도 직장 다니면 세금 낼 것 다 내잖아요. 세금 감면 혜택도 없는데.** 그렇다면 국가에서 행복주택을 제공하거나, 세를 얼마 이상 못 올리게 하는 법? 이런 것들 통해서 주거를 안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수연, 40세, 기혼

주택협동조합 이런 건 항상 제 요건에 비껴나가더라고요. 이 나이 대(30대)가 비껴나가요, 항상. 결혼했는데 집이 없다든가, 나이가 더 어려야 한다든가, 나이가 더 들어야 한다든가, ‘나도 좀 필요한데’라는 생각을 항상 하긴 하는데 ‘아직은 내가 아닌가?’ 제가 여기서 조건이 더 안 좋아야 해요. 돈이 더 없다든가 부모님이 가난하다든가, 저는 애매하게 도움을 못 받는 요건이라서 아예 안 찾게 돼요. ‘난 아직 아닌가 봐.’

-이진영, 33세, 비혼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명을 해야 수술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해서, 가족 중 한명에게 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입원을 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사시는 아버지랑 통화를 해서 겨우 해결했어요. 응급실이나 입원을 할 때 보호자 동행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가지고 간 가방을 둘 곳이 없고, 입원할 때는 안내를 보호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입원해서 링거를 꽂고 있는데 식사는 복도에서 가져와야 해서 옆 침대의 보호자가 대신 가져다 준 적이 있었어요.

- 온라인 설문조사 답변 중

VI. 맺으며

최근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연내 다인가구 위주였던 기존 복지정책 틀을 조정해 1인 취약가구를 중점 대상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⁷⁾ 일례로 근로장려금(EITC) 제도는 원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다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1인가구는 예외적으로 60살 이상만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50세 이상, 내년에는 40세 이상의 중년 1인가구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가 부부·자녀라는 기존의 가족 중심의 복지 틀을 재고하겠다는 것은 반가우나, 그것이 단지 지원 대상을 약간 수정·확대하는 정도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특정’ 요건을 갖춘 ‘취약한’ 계층을 선별하려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정책별로 명확한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각 대상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정책을 고려하는, ‘개인’이 기본 단위가 되는 복지 제도로 전면 개편 하여야 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정책은 원룸위주로 기본적인 질이 담보되지 않는 수준의 주택 정책이다. 청년이건 아니건, 1인가구라고 해서 원룸, 반지하와 같은 열악한 주거 형태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집의 상태는 불가피하다는 정책 입안자의 관점으로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다. 최소한의 면적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형태여야 한다. 적정 주거 기준 마련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세입자권리를 보호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보았듯이, 1인가구여성들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과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다. 가정 내 비민주성과 불평등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기도, 선택하기도 한다. ‘일가정 양립’이라는 프레임은 여성노동자에게만 적용되며, 여전히 가사와 육아를 여성이 전담하는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성에게 이중 노동을 부과하는 것일 뿐이다. 결혼 안하는 여성

7) “정부, 연내 ‘1인가구’ 범정부 종합대책 만든다.” 한겨레. 9월 28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63250.html>

대 결혼 못하는 남성의 구도로 놓고, 청년 남성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삼포 세대’라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지만, 비혼 여성에게는 이기적 선택이라며 저출산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들이댄다. 국가와 사회가 맡아야 할 복지를 여성의 돌봄 노동에 의존해 온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결혼과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낙인과 불이익을 주는 프레임이 유지되는 한, 현 사회의 큰 위기⁸⁾라며 지목 하고 있는 저출산 해결도 없다.

8) 민우회는 저출산 위기론, 즉 낮은 출산율을 한국사회의 위기라고 보는 문제 설정에 대해서, 문제를 출산과 보육으로만 한정지으면서 여성을 정책 대상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제기를 하였고, 재생산권이라는 틀로 포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성평등복지포럼 [‘저출산’을 질문하다] 자료집 참고(2015)

발제2.

1인가구 여성, 구조적 한계와 능동적 선택 사이에서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

1. 1인 가구 여성, 새로운 주체의 탄생 : '낙인'에서 '라이프스타일'로

혼자 사는 여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성애 결혼이란 제도와, 부모 또는 남편이라는 후견인을 통해 사회적 존재성을 인지해왔던 여성들은 이제 사회적, 법적, 문화적으로 독립적인 대표성을 갖춰나가고 있다. 소위 혼자 사는 여성은 집단적 관음증이나 접근 가능한 대상으로, 혹은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존재로 인지되었다. 여성은 '까다롭다' '뭔가 모자라다' '외롭다' '고립감에 시달린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접근가능하다' '사연이 있다' 등의 문제적 존재로 낙인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 이런 낙인은 급증하는 1인 가구 여성을 문화적으로 억압하는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

1인가구란 비혼 등 독신 가구뿐만 아니라 법적 배우자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현재 함께 생활하지 않는 가구, 즉 기러기가족이나 주말부부를 포함하고, 또한 이혼 전 단계로서 별거를 선택하여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한 세대 등 다양한 혼인지위를 포괄하지만, 가구구성 및 주거에서 혼자서 생활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⁹⁾ 즉, 단독으로 일상을 유지하고 미래를 기획하면서 살림, 즉 삶의 방식을 구성해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2010년 1인 가구 비율은 23.9%에 달하고 있다.¹⁰⁾ 2010년 계에서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은 전체 1인가구의 53.5%이지만, 남성 1인가구는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시장지위가 불안정한 청년세대와 단독가구로 생활하는 고령노인의 증가에 기인한다.¹¹⁾ 여성 1인가구의 증가는 배우자 없이 생활하는 여성들이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증가하면서 독립하여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났다는 점과, 여성 노인들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9) 김혜영(2014), “유동하는 한국가족: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5(2), 258-9쪽.

10) 통계청, 『2015 한국의 사회지표』, 2016. 4쪽.

11) 김혜영, 위글, 272쪽.

1인 가구, 특히 1인 가구 여성의 비약적인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새로운 실험’일 수 있다.¹²⁾ 왜냐하면 ‘정상가족’의 상징을 독점해 온 2세대 핵가족이나 확대가족 보다 1인 가구가 가장 ‘안정적인’ 가구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1인 가구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 능동성, 독립성, 친밀성, 경제력 등에 관한 복잡한 도전과 의미들을 해석하면서 새로운 자기규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본 발표문은 1인 가구 여성의 급증을 신자유주의가 추동하는 경제적 빈곤화라는 구조적 강제와 젠더 불평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의 능동적 선택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교차로로 개념화한다. 1인 가구 경험이 있는 15명 여성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확장적 자기 해석성을 분석한다. 1인 가구 여성은 낙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주체는 아니지만, 낙인이 실제 경험과는 너무나 유리된 가부장적 각본임을 알고 있다. 또한 소위 ‘골드미스’나 ‘성취지향적인 성공모델’같은 재현이 표상하는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라이프스타일을 주장하기에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원이 부재하다는 점도 통감하고 있다. 그러나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대책이 ‘치안 관점’을 중심으로 한 ‘안전대책’에만 집중하는 것도 또한 전형적인 남성 후견인 관점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은 아니다. 여성 1인 가구는 ‘경제 불안 및 젠더 불안정성’ 이후의 새로운 생애 각본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쉽게 전형화하기 어려운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논의들이 여성 1인 가구 논의를 ‘안전’과 ‘빈곤’ 문제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본 발표문은 정동(affect)과 정체성의 영역으로 1인 가구 여성의 삶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에릭 클라이넨버그, 안진이 옮김, 『고잉솔로: 싱글턴이 온다』, 더퀘스트, 2010. 7쪽.

2. 연구방법론

본 발표문은 1인 가구 여성 15명에 대한 심층면접과 보조 자료로 2명의 40대 초반 남성 1인가구원에 대한 심층면접을 분석하여 작성했다. 구체적인 면접자의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면접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결과물의 용도에 대한 정보를 고지했고 인터뷰 동의서를 받았다. 모든 이름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했다.

<심층면접 참여자 목록>

이름 (가명)	나이	결혼 여부	1인 가구 기간	직업	설명
서이영	28세	비혼	9년차	취업준비	대학진학을 이유로 서울로 왔다. 가장 큰 고민은 주거와 경제적 독립이다. 20대 내내 이사를 다니면서, '살만한 집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김수연	40세	기혼	10년	프리랜서	10년간 혼자 살다가 최근 결혼했다. 전 직장 동료들과 1인가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지금도 종종 만난다. 현재 하고 싶은 것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민	35세	비혼	3년	교육직	몸의 질병을 경험하면서, 독립만큼이나 함께 살아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혈연가족이 아닌 사회적 가족을 고민한다. 복지제도의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을 꿈꾼다.
이진영	33세	비혼	7년	학생	안정적이지 못한 수입과 높은 주거비가 부담이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학원에 진학했다.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다.
이하은	44세	이혼	6개월	사무직	요가, 뮤지컬 등 직업 외의 활동이 주는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편과 얼마 전 이혼했다.
박지은	41세	비혼	5년	기타	전라도 근교 시골 빈집에 거주 중이다. 경제적 자원보다는 관계자원을 중요하게 여기고, 귀촌했다. 현재는 귀촌한 비혼여성 네트워크가 주 관심사다.
한선희	43세	이혼	5년	교육직	이혼을 즐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제2의 1인가구를 꿈꾼다.

김미선	51세	비혼	3년	사무직	동생과 오랜 시간 함께 살다가 최근 독립했다. 최근 좋아하는 가수가 생겨서 팬질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지금 내가 재밌고 즐거운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미림	60세	비혼	30년	기타	결혼하지 않고 오빠 가족과 살다가, 독립한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 비혼의 이유를 개성이 강해서, 가족을 통해 뭔가를 이루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라고 말한다.
이숙희	92세	이혼	10년	없음	30대에 이혼하고 결혼하지 않았다. 경제활동에 매진했고, 여동생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함께 가장 역할을 했다. 스스로를 결혼에 맞지 않는, 성질이 썩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40년지기 친구가 있다.
신희주	44세	비혼	2년	교육직	학원강사라는 일의 성격 상 밤낮이 바뀌는 생활 패턴 때문에 독립했다. 원룸에 살다가 최근 이사했다. 피아노, 우쿠렐레 등 취미로 외로울 틈은 없다.
강은경	36세	비혼	14년	없음	20대에 부모님의 경제적 이유로 인해 혼자 살았다. 뒤늦게 의대에 입학하여 인턴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건강문제로 휴직 중이다.
조은지	46세	비혼	17년	교육직	가부장적인 아버지로 인해 어릴 때부터 원가족에서 독립하고 신은 욕구가 컸다. 교사로서 학생들과 소통을 중요시 여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질감, 연대의식이 높다.
정은희	33세	기혼	5년	대학원생	20대 초반에 독립하여 친척집, 고시원을 거쳤고 친구들과 룸쉐어 경험이 있다. 1인가구에게 주거형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수민	31세	미혼	3년	학원강사	유학 생활 중 1인가구 경험이 있다. 유학 경험 있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자주 느꼈다. 현재 가족과 거주하지만 주거 공간만 공유할 뿐 각각의 삶을 살고 있다.

남성 면접자는 40세의 교육계 종사자와 41세의 활동가다.

3.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젠더 불안정성

1인가구의 급증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한국 근대화 과정은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 층을 양산했고, 이때 주로 가족자원을 제공받아 진학과 학업을 위한 이동을 한 사람은 남성들이었다. 여성들의 경우는 일자리를 위한 이주가 대부분이었고, 여전히 친척, 회사, 종교단체의 ‘보호’아래 주거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가 하나의 소비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자본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한 사람들이 이동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학업을 위한 이주나 유동적이고 이동성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가족 구성원이 같은 공간에서 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일부 유럽처럼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지역의 경우 1인가구라 하더라도 다양한 안전망 덕분에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그러나 가족이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 해 왔던 한국의 경우 1인가구는 가족 자원의 분산이나 삶의 질 하락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특히 여성 1인가구의 급증은 탈 가부장적 가족제도, 즉 비혼과 이혼 선택의 증가 등의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요인은 실용적 혹은 표현적 개인주의가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개인화현상이기도하다.¹³⁾

일부 학자들은 한국사회가 여전히 가족중심성이 일정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 혹은 가족을 경유하는 개인화”로 해석한다.¹⁴⁾ 그러나 가족에서 ‘가구’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주거 및 생활을 하는 개인들이 증가하면서 공동주거를 통한 가족 구성원간의 연대와 친밀성에 부여하는 가치는 희석되고 있다. 시공간적 분리를 메워주는 디지털 통신 기술을 통해 가능해졌고, 24시간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도시적 환경은 자족적 1인가구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13) 에릭 클라이넨버그, 안진이 옮김, 『고잉솔로: 싱글턴이 온다』, 더퀘스트, 2010.

14) 김혜영(2014), “유동하는 한국가족: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5(2): 255-292, 257쪽.

그러나 1인가구의 급증은 경제적 빈곤화와 여전히 강력한 성차별에 노출된 대다수의 여성의 선택일 수 있다. 지난 30년간 신자본주의적 경제 질서가 급속히 확장된 상황은 가족과 젠더 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추동했던 산업자본주의가 성별 노동 분업에 의한 핵가족을 자본축적의 기초적인 단위로 구성하고, 여성들의 '가정 주부화 (housewifization)을 강제했던 것에 비해, 새로운 형태의 자본축적은 가정의 물적 토대를 허물고 모든 개인을 소비자로 구성해가는 강압적 질서를 만들어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축적 위기 이후 더 이상 생산 영역에서 초과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이고, 금융화와 노동 유연화, 안전기준 하향 등을 통해 자본가나 자산가의 이해를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재생산적 전환'이라 불리는 흐름이 가속화되는데 이는 자본주의체제의 전환, 즉 상품을 생산하던 생산영역에서 일상생활의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재생산영역으로 자본이 확장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의식주, 육아, 교육, 건강 및 외모, 휴식 및 오락, 지식과 세계관의 전수 같은 교육 분야의 재생산적 영역이 상품화되고 있다. 경험과 체험을 통한 취향의 개발 또한 고비용 상품이 되고 있다. 재생산영역의 상업화는 인간의 물적, 감정적, 인지적 존재성 자체를 돈을 주고 아웃소싱 하여 개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냈다. 사회적 재생산의 모든 영역이 급격히 상품화되면서 소비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들어졌고 인간의 생존자체가 '고비용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국가, 시장, 가족, 제3섹터 등에 의해 균형 있게 수행되어야 할 사회적 재생산 영역이 급격히 상품화되면서 시장이 사회적 재생산을 담당하게 되는 상황을 낳게 되었다.¹⁵⁾ 사회적 재생산이 사회 유지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영역임에도 국가나 시민사회가 수행하던 '관리' 및 '조정' 기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가 힘을 쓰지 않는 생활세계의 문제들, 즉 건강, 안전, 환경 등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안정성과 지속가

15) Kate Bezanson and Meg Luxton. "Social Reproduction and Feminist Political Economy" In Kate Bezanson and Meg Luxton, eds. *Social Reproducti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6.

능성이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사회적 재생산 분야는 가장 투기적이고 불예측적인 시장상황에 의해 그 질이 좌우되는 불안정한 영역으로 전락했다.

사회는 물론이고 가족 내 성평등이 채 실현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여성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전면화 되었다. 국가가 취약한 가족복지를 대신하여 사회적 재생산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재생산이나 돌봄 노동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란 단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대되었던 결혼, 아이 양육 및 교육, 지속적인 친밀성의 교환, 위기에 대한 공동적 대처, 노인 돌보기 등은 고비용일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이나 전망 또한 부재한 일이 되었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시장진입부터 고용지위 유지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상품성을 지속적으로 극대화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결혼비용을 위시한 가족재생산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과도한 노동경쟁에서 오는 시간압력은 결코 대다수 현대인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¹⁶⁾

무엇보다 젠더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생산 영역의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할 선택을 하는 여성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족이라는 젠더 불평등의 낡은 구조를 통해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쟁 및 생존 체제라는 새로운 도전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런 점에서 ‘개인화된 생존’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고 사회화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여성들에게 지워왔던 전통적인 젠더 관념이 현대사회의 복잡한 요구에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강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지 않다.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과 기여가 강조되지만, 가족 내 성평등이나 민주적 가사분담은 지체된 상황에서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출산을 조절함으로써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거나 커리어와 경제적 독립을 위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성애 가족이라는 제도적 형태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16) 김혜영(2014), “유동하는 한국가족: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5(2), 267쪽.

도 친밀성을 추구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다원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됨으로써, 생애기획의 형태 또한 ‘자율’과 ‘능동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성과 다원주의적 가치관의 증가 속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의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1인가구를 선택하고 있다.

도시지역 1인가구의 급증은 새로운 정책적 우려를 낳고 있다. 1인가구는 저출산과 높은 이혼율, 고독사를 포함한 자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이며 증거로 채택되어지면서 지자체 차원의 정책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고립’, ‘빈곤’, ‘치안’이 1인 가구 여성을 상징하는 주요 분석어가 되고 있다.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를 통한 세대별 주요 의제에서 공통적으로 제안되는 것 또한 안전에 집중하여 주거지 환경 개선, 긴급 상황 발생 시 도움요청 시스템 등 안전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맞춤형’ 주택, 즉 여성1인 가구 전용 원룸 형 주택, 세대 통합형 여성 1인가구 전용 주택, 아파트 우선권 부여와 같은 ‘화려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¹⁷⁾ 정책이 실현되면 1인가구의 여성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화적 침해와 몰이해, 그리고 강조된 수동성은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의 삶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7)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6), 서울 1인 가구 여성의 삶 연구: 세대별 의제를 중심으로. 2016년 9월 6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4. 여성들의 서사 분석

1) 자기 돌봄의 윤리와 전략

51세 김민선씨는 1인가구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는 ‘친구, 건강, 취미생활’이라고 답한다. 10년간 1인가구로 살다 최근 결혼한 김수연씨는 혼자 사는 것은 ‘내 집을 경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삶을 단순화하고 물건을 최소화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한다. 1인가구는 경제적, 사회적, 감정적 모든 측면에서 자기 돌봄의 윤리와 전략을 발전시켜야지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돌봄의 윤리는 감정, 건강, 경제 모든 면에서 욕망을 조절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여성들은 무엇보다 1인 가구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처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1인 가구 여성들은 여성들이 ‘덜 의존적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은 뭔가 까다로워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1인가구 여성들에 대해 ‘부럽다’ 또는 ‘혼자 살기 때문에 뭔가 결핍이 있을 것이다’라는 모순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소개시켜준다고 한다. 결핍을 메우라는 의미에서 받는 소개는 특히 30대 중반까지 지속되지만, 이후 소개나 결혼 권유는 사라진다. 여성 재생산 능력의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섰다는 생각에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결혼시장에서 제외된다. 이 시기까지 여성들은 1인 가구에 대한 주변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자신의 삶을 방어하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다고 말한다. 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들과 남성들은 ‘결혼을 꼭 해야겠다’거나 ‘하지 말아야 겠다’ 는 결심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어쩌다보니 현재의 내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가능성에 대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 개입, 탐색이 집중되는 시기는 여성들의 ‘혼자 사는 능력(혼력)’을 길러내야 하는 시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집에 남자 있나보다’하는 무례한 발언에 대해 ‘맞아

요. 요일마다 남자가 달라져야“하면서 더 강하게 맞받아친다(김미선 51세). 이 추궁과 심문의 시기를 넘게 되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얻게 된다. 즉, 1인 가구가 된다는 것은 즉각적인 자율과 해방의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나이가 지나야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자연스런 상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 시기를 견뎌야 진정으로 ‘혼자 사는 힘이 생긴다’. 가족이나 주변의 간섭, 조언, 압력이 멈추는 순간, 1인 가구 여성은 가족 내에서 다른 위치를 갖게 된다.

어는 순간 한 40대 중반부터 어머니가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오히려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명절 때 딸이 오는 것도 좋고, 주변에서도 다 인정이 된 것이니 저도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거지요. - 김미선, 51세

40세 1인 가구 남성인 최종민씨도 결혼압력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머니의 충실한 ‘대화상대’이며 집안의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획득했다고 말한다.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고 흥을 보는 어머니에게 며느리 입장이나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결혼 못한 불쌍한 장남’으로부터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친구이며 공정한 중재자로 위치가 변화한 것이다.

또 다른 투쟁은 사회적 편견과의 싸움이다. 보통 1인가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동은 ‘고립’이고 이들은 우울감, 외로움, 고립감, 슬픔을 느끼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식생활 등 생활양식에서도 소극적인 태도가 관찰된다고 평가된다.¹⁸⁾ 이 때문에 1인가구의 정신건강은 “전체 사회의 안녕과 통합이라는 차원에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¹⁹⁾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은 외로움이 1인가구여서가

18) 이명진(201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세대별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문, 92쪽.

19)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비혼여성 1인가구정책지원방안 수립>의 연구보고서(2012년)에서 실제 사용한 설문지에서는 외롭다거나 쓸쓸하냐는 질문은 없고, 이런 감정을 전제한 채 묻는 질문, “귀하께서는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느끼면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술을 마신다’의 비율(평균 11.3%)이 높다는 것에 주목하여,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은 우울증 및 알콜 중독의 초기 증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84쪽). ‘외롭거나 쓸쓸할 때가 거의 없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11.5% 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해석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1인가구가 된 지 오래되지 않은 여성들의 경우, 외로움이나 고독감보다는 살아있음, 해방감, 나를 위해 구체적인 무언가를 해 나갈 수 있다는 진취적 능동성이란 감정이 지배적이다. 의식적으로 스스로 돌보는 활동에 관심이 많다.

이들에게 의미 있는 타자는 친구다. 중요한 이야기를 터놓는 대상이나 조언이나 상담을 구하는 대상 또한 친구가 대부분이다. 시간을 가장 많이 함께 보낸 사람도 친구이고, 이 외 좀 더 확장적이며 얇은 관계망으로 단체 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사람을 만난다. 이들에게 정치적 입장이나 가치관 등은 매우 중요한 준거 틀이고, 이들은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1인 가구 여성들은 과도하게 관계나 사람에 의존적인 성향을 갖지 않은 경우도 많다. 1인가구로 살아 온 경험이 긴 여성들의 경우 자신을 ‘자족적’이라 규정하면서, “사람을 억수로 그리워한다던가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크게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신을 ‘결혼과 맞지 않는 인간형’이란 말도 자주 한다. 이들은 인간관계보다는 산책, 등산, 요가 등을 통해 자연이나 몸과 교감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으면서 ‘사유적’ 삶의 태도를 만들어간다. 즉, 사람을 통해서만 감정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인간, 즉, 동식물 등을 기르며 함께 생활한다거나, 자연과의 친화를 통해 자족적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도 한다. 꼭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고, 친구들과 사교를 하고, 돈을 투자해 취향을 개발하는 것이 고립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며, 그것을 ‘사회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성향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추동해 낸 ‘소비 지향적’ 체험 사회의 언명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자연 속으로 나가만 말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편안하고”(오미림), “50년 만에 처음으로 좋아하는 가수가 생겨” ‘팬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열정을 유지해간다.

1인가구 여성과 남성 모두 “아플 때가 제일 힘들다”로 말한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1인가구에게 병이나 사고는 이제까지 잘 살아왔던 1인가구원으로서 삶 자체를 후회할 만큼의 감정적 충격을 가져온다. 40대 이상의 1인가구 여성과 남성은 위기나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질병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 경험을 갖고 있다. 상시적으로 도움을 구하거나 돌봐 줄 사람이 없다는 이식은 공포나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바로 이점 때문에 자기 돌봄의 강한 윤리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우울’이나 ‘우울증’에 대한 염려로 걷기나 관계 맺기 등 다양한 실천을 해 나간다.

원래 저 우울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 이런 책을 제가 사놓긴 벌써 사놨다가 최근에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무조건 나가야겠더라고요. 제가 한 4월 달에 좀 아파가지고 좀 우울했었거든요. 아프니까 자유롭지가 못하고 몸이 자유롭지가 못 하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아프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엄청 땀 뻘뻘 흘리고 며칠간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싫은 거예요. 병이 구속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우울했었거든요. 조금 나았는데 그 때 마침 그 책을 읽고 있었어요. - 김미선, 51세

이들은 병, 몸의 고통, 우울의 정서를 빨리 감지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들은 “한 번씩 문 두르려주고 문열어보자”는 의무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정도의 관계망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통감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요양기관에서 외롭게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상상보다는 지지기반의 역할을 해주는 네트워크나 공동체 안에서 노년 시기를 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이들은 경제적 상황에 맞게 자신의 삶을 조절하는 ‘습관’ 또는 질서를 만들어간다.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 대부분이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정보에 열려 있기’를 통해 임대주택, 연금, 보험, 지역서비스,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소비’를 조절하기 위해 나이가 들수록 의식주 관련 자활노동을 해나간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이것이 지나친 ‘간섭’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다. 타자의 ‘배려’가 무례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가능한 자족적 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

2) ‘탈-가족주의적’ 가족 관계

비혼 1인 가구 여성들은 결혼은 ‘꼭 해야겠다’ 거나 ‘안 해야 겠다’ 라는 결심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여성이 원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을 통한 분리와 1인가구로 분거하는 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원 가족이나 결혼제도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의 열망이 매우 큰 존재였다는 점이다. 또한 가족이 정체성의 기원이며 유일한 안전망이고 계층상승의 도구라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났지만 가족 구성원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들에게 가족주의는 제대로 된 ‘성인’이 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치로 해석된다. 즉 이들은 원 가족이나 결혼 및 동거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본원적 친밀성을 전제하고 수행돼 온 폭력, 모욕, 간섭이 제대로 된 성인으로서의 감정과 독립심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어 왔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1인 가구 여성이 원 가족으로 처음 분거를 결정한 이유도 부모의 통제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물리적 거리감을 갖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1인가구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경영하는, 제대로 된 ‘어른’이 된다는 의미이고, 이런 점에서는 가족이라는 1차적 사회적 관계에 종속돼 온 자신의 관계망을 ‘타인’으로 확장시켜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현실화시켜내는 결정이다.

인간이 개인으로서 자기 생활을 꾸려본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 그걸 해보고 안 해보고는, 군대를 다녀오기는 하지만 그건 강제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해보고 안 해보고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가사 노동에 대한 시선도 그렇고, 하다 못해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라도 느끼게 되잖아요. 그게 없다는 것은 평생 어떤 부분이 미숙한 채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혼자서 어떤 공간 안에서 자기 삶을 꾸려보는 것은 되게 소중한 경험이 아닐까요? - 김수연, 40세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은 특히 결혼관계를 통해 책임감을 획득한다는 전통적인 관념 또한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남녀성역할 이분법에 의존하여 맺어지는 결혼관계의 틀은 ‘조율’과 ‘조정’이라는 과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적 결합을 통한 안정적 삶 만들기라는 도구적 관점이나 혼자 사는 불안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는 결혼이 자신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안정정인 삶을 이룬다거나 친밀성과 소통에 대한 고양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건한 가족 내 젠더 불평등은 여성들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를 급진적으로 변화하게 만든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개별성에 대해 존중받기를 원하며,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결혼에 대한 행복한 상상은 여성들의 현실에서 완벽히 깨져버렸다. 즉, 결혼 관계는 두 명 모두 성숙된 사람이어야 가능한 것이고, 결혼 제도를 유지했던 기존의 모든 불평등한 이데올로기와 질서, 시댁의 요구 등은 더 이상 수용되기 어려운 강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은 결혼이 여전히 남성 생계부양자, 또는 여성의 보조 생계부양자로서의 관계망을 의미하는 상황, 출산 및 돌봄, 교육을 ‘소비’와 ‘지출’이란 측면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 이 때 가족은 삶의 자율성을 파기하는 나쁜 제도라는 점을 주장한다. 이혼 이후 1인가구적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은 ‘부부’ 또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낡은 이데올로기가 들이밀어지기

시작하면 곧 관계에 균열이 만들어지고, 해체로 이어진다는 점을 통감했다고 한다. 상대방이 ‘우리는 가족이잖아.’ 하고 기대를 하는 순간 희생을 강요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1인 가구 여성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를 생각하는 경향 또한 강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과 외로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의식은 ‘참조집단’으로 간주돼 온 부모의 죽음이나 친구들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삶의 ‘가시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생을 마친다는 것에 있다. 즉, 부모, 조카, 형제자매를 물질, 감정적으로 돌봐왔지만 이런 노력을 ‘모성’이나 ‘부성’등의 이름으로 언어화할 수 없다. 몇 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혈연이나 조카 등을 교육하고 돌보았던 경험 또한 ‘은혜’나 ‘효’로 보상받지 못한다. 또한 제자나 주변인들에게 덕을 베푼 1인 가구 여성은 마지막 순간에 이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돌봐주지 않을 것이란 점도 잘 알고 있다. ‘특히 부계제에 익숙한 남성들에게는 죽음의 순간에 존재의 연속성을 증거 해 줄 혈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고백한다.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삶의 의미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결국엔 모든 사람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아는데, 삶의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손이 남는 게 의미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정서적인 면에서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종민, 40세

비혼이나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구성원은 삶이 지속된다는 느낌을 주는 자손을 남겨두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면서 내가 종말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다. 1인가구의 삶은 자족적이고 자기경영적인 삶을 산 것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허무의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3) 비시장적 교환 회로망의 필요성

1인 가구 여성들은 '경제력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오랜 격언을 가족 및 주변사람들에게 주입받아 왔고, 자신들도 이런 삶을 지향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력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여성들은 자생과 자존의 기반을 경제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이 줄어들거나 없다는 것은 곧 '민폐'를 끼치는 존재가 된다는 것과 과도하게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가족구성원과 함께 사는 사람은 다른 구성원에 대한 의존이나 가족 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경제력 상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향력 축소'를 메워나가지만, 1인 가구 여성에게 경제력 상실은 존재의 상실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경제력은 1인 가구 여성의 사회적 관계 만들기의 참여 의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가 된다. 경제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극성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1인 가구 여성들은 자신의 일과 노력으로서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의식 때문에 편안히 들어앉아 대우를 받으며 노후를 보낸다는 상상력을 갖지 않는다. 이들은 주당 몇 시간의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거나,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열망한다.

그러나 늙고 병들고 외로워진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실존의 문제이므로 1인 가구 여성은 경제력 이외의 다른 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능력 또한 함양해야 한다. 실제로 36세에 이혼한 후 여동생 가족과 살다 10년 전부터 1인가구로 살고 있는 92세 이숙희씨는 다양한 공적, 사적 자원을 결합시켜 나름 '충족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 자식이 없는 이숙희씨는 이혼 후 열심히 번 돈으로 조카들을 돌봤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팔아 조카 아들 집을 마련해 준 후 2012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매월 3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주민 센터로부터 매일 도시락을 배달받아 먹는다. 조카딸 중 하나는 그를 이모가 아닌 '큰엄마'로 부르며 매월 정기적으로 30-40만원의 용돈을 보낸다. 40년 이상 교류해 온 친구는 고추장이나 막장, 참기름 등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었고, 최근에는 거동이 불편해 택배로 보내준다. 이숙희씨는 그런 친구에게 10만원씩이라도 용돈을 준다.

응급한 상황이나 병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조카들의 전화번호는 단축키를 통해 저장된 상태다. 조카들은 매일 전화로 이숙희씨의 안부를 챙긴다. 고령의 이숙희씨가 1인가구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런 공적, 사적 지원 네트워크와 더불어 이숙희씨가 쌓아온 ‘탈 의존적’인 생활 습관 덕분이다. 이숙희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하루에 두 번 약을 챙겨먹고,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TV를 본다. 집안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한다. 피자과 치킨을 좋아해서 한 달에 한번씩은 ‘전단지’ 광고를 통해 전화로 시켜먹는다. 남은 피자는 한 조각씩 냉동실에 넣어 보관했다가 먹고 싶을 때 꺼내 먹는다. 물과 간단한 식품도 전화로 주문해 사먹는다. 그녀는 “전단지가 있어 전화만 하면 모든 것이 배달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바빠 누구를 모시고 산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족적이고 자존적인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공간 이동을 통해 ‘탈 의존’의 생활 태도를 급진적으로 실행하는 1인가구 여성도 존재한다. 파트너와 헤어진 후 41세의 박지은씨는 2년 전부터 고정된 주거지가 없는 ‘홈리스 적 삶’을 살고 있다. 그녀는 도시에서는 임대료나 각종 지출이 많아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역에 내려가 살고 있다.

제가 20대에 대학이라는 걸 오게 돼서 제 고향으로부터 떨어져서 서울을 올 때는 여성으로서의 삶의 가능성이라든지,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왔는데 도시에서 여성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뭘 부탁한다거나 의존한다는 게 도시에서는 바람직한 여성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경계하고, 의존이나 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0대 때는 ‘의존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30대에 들어서니까 사람은 온전히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서로 기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더라

고요. 30대가 되니, 비혼으로 살겠다, 여성으로 독립적으로 살겠다, 했던 주변 친구들이 보험을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서로 보험 상품을 권유해주고 살림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더라고요. 보험을 들거나 이런 방식으로의 돌봄은 저한테 적합한 방식의 돌봄은 아닌 것 같았어요. 나를 지키고 내 노후를 보장받는 서비스를 돈을 가지고 구매한다는 게, 저를 자유롭지 못 하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지니까... 도시에서 살려면 계속 오르는 집세를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맺었던 관계들 안에서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친구들이 제안해주는 일들 또한 이전에 살았던 삶들의 패턴 안으로 저를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좀 거리를 뒤야 돼요, 사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녀는 돈이나 시장경제에 속박된 삶으로부터, 관계의 회복과 상호 의존을 통한 비시장적 교환과 돌봄으로의 이동을 꿈꿔왔다. 그녀는 농촌마을에 들어가 빈집에서 살면서 노동교환, 노래 선물, 방과 후 교실, 동네 아이 돌보기, 취향이 같은 사람과 시간 갖기 등 동네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존을 만들어간다. 그녀가 실행하는 ‘탈 의존’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선물’(gift), 호혜, 품앗이 적 교환 등을 통한 비시장적 교환을 할 수 있는 삶을 의미한다. 농촌 지역의 1인가구 여성은 성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도시 여성이 더 공포를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짐승들도, 어떤 존재라도 본인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잡아먹힐 수도 있고, 싸우다가 다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누가 침입하고 성폭력을 당하는 스토리밖에 없는 거예요.

민우회의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미디어나 ‘괴담’을 통해 유포되는 공포의 뉴스는 자기 방어나 싸움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운명론적 피해자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자신이 삶의 질서를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위협에 대한 과도한 공포나 자기 관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폐쇄적 인간관계로 귀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44세로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는 이하은씨는 혼자 사는 여성이 “성적으로 만만할 거라는” 사람들의 편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적 농담을 자주하는 남성 동료에게 ‘나한테 말 걸면 죽여버리겠다’는 눈빛을 하루 종일 보낸다고 말한다. 그만큼 1인가구 여성은 온 힘을 다해 삶의 방어벽을 쳐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강력한 에너지를 내부로 수렴하는 행위이고 때로는 삶의 힘겨움이나 고통으로 격앙되기도 한다. 1인가구 여성들이 독립적이어서 한다는 의미를 강박적으로 내재화하여 옴짝달싹 못하는 병약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타자의 돌봄에 익숙하지 않다거나 우연이나 불예측성에 관대하지 않게 됨으로써 위기를 대응하는 문화적 능력을 길러내지 못할 수 있다.

5. 마무리

1인가구가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항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전제는 이들이 일궈 온 다양한 삶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1인 가구 여성이 설사 그런 상황에 있다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감정을 정책이나 제도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때로는 위험하고 ‘침해적’이다. 생존에 대한 전면적 불안이 가속화되는 신자유주의적 상황에서는 좀 더 정의로운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장기적인 변혁의 기획을 해 나가야 하고, 이 기획의 현실화를 통해 모든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1인가구 여성이 경제적 빈곤화와 유동적인 노동 시장 때문에 느끼는 불안은 CCTV를 설치한다거나 국가 기관에서 남자나 친구를 소개시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임시적, 일시적 ‘조치’는 구조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1인가구 여성을 집단적으로 피해자화하거나 수동적인 대상으로 상상할 때 나올 수 있는 대안이다. 급증하는 1인가구 여성은 ‘문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예한 사람들이 아니라 “충분히 행복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존재”(김수연 40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하더라도 ‘탈의존’의 철학과 ‘탈가족주의’를 통해 성평등적인 정체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체이기 때문이다. 탈 의존적인 삶의 태도와 경제적 빈곤이라는 조건을 가진 1인가구 여성들은 무조건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이 국가와의 거래에서 스스로를 ‘취약계층’으로 동질화시켜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취약성을 강조하면서 시혜를 요청하거나 집단적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1인 가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둘 다에 익숙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지향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개별성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국가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종속’되거나 ‘의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상호인정이라는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지향하는 1인 가구 여성들은 혼자 살지만, 동등한 위치에서 협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은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이타적 돌봄이나, 확장된 친밀성, 소비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환과 거래의 네트워크 등을 상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즉, 탈 의존적이며 독립적인 자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감과 불안감, 위기, 불예측성을 관리하는 공적 제도와 결합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틀이 개발되어야 한다.

자신을 ‘독립가구주’나 ‘독립생활인’으로 불리길 바라는 1인가구 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압축적 경제성장과 고질적인 젠더 불평등의 사회적 결과로 탄생했고, 이들은 이 둘, 어떤 것에도 점유당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를 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참조해야 할 ‘앞 세대’도 없고, 후속 세대의 여성들에게 조언 할 만큼의 인생의 자신감은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가장 인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느끼지만 삶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할지 말하고 물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자문을 구하거나 상담을 받을 존재나 통로가 부재하다는 점은 1인 가구 여성의 ‘막막함’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1인가구가 성불평등적인 결혼관계나 가족제도를 변화시켜낼 수 있는 지속적인 라이프스타일이 되기 위해서 이들은 상호 돌봄에 의존하여 경제적, 정서적, 문화적 위기를 극복해가야 한다. 한국 사회가 다원주의적 가치를 확산하며 배제보다는 ‘소속’의 정치를 만들어내고, 시장경제이외의 비시장적 경제회로 속의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1인가구 여성의 삶의 질은 향상된다.

이들이 희망하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는 무인택배, 밤길귀가 동행 서비스, CCTV설치 같은 조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요청한다. 사실 이런 조치들은 꼭 1인 가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치안 불안에 대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1인가구 여성을 ‘위한’ 대책으로 과도하게 선전될 필요는 없다.

1인 가구 여성들이 불안한 노후에 대한 대책으로 희망하는 것은 자신의 탈의 존적 삶의 태도가 반영된 ‘자족적인 라이프스타일’과 ‘협력을 통한 위기관리’를 결합시켜 낼 수 있는 주거모델이다. 이런 주거 모델은 서구 및 일본에서 유행중인 ‘코하우징’의 형태로 1인가구와 같은 주거 독립성(침실 및 개인공간 분리)을 유지하면서 공동부엌과 텃밭 가꾸기 등을 통한 공동 노동이 가능한 공유 공간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사업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에 집중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세금을 내는 만큼의 혜택”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1인 가구 여성들은 익명의 타자들과의 피상적인 만남보다는 매우 축소되고 긴밀한 사회관계를 ‘유지’하지만 서로의 삶의 스타일을 존중받기를 원하는 ‘인정의 거리’를 필요로 한다. 또한 이들은 자기와는 정말 다른 류의 인간형에게도 유일한 호기심을 보일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이기도 하다. 1인 가구들의 다원주의적 세계관과 협력적 자아관이 반영될 수 있는 ‘거주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고, 조만간 이런 형태의 거주 모형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치’와 ‘공동체성’이라는 긴장과 활력의 장소가 여러 곳에서 창궐할 것이다.

토론 1.

1인가구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

박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문제의식

- 기존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속의 가족의 흥망성쇠라는 관점 하에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었으며, 그나마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청년 1인 가구, ‘가족구성의 임무를 다한’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은 파편적인 수준.

□ 서울지역 4050 여성 1인가구의 노후 준비

- 노후에 대한 불안함 정도는 노후 대비가 부족하여 노후 경제생활이 어려울 것, ‘노후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50대에 비해 더 불안감이 크며, 비혼 집단 보다는 이혼/사별집단이 더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됨
-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있더라도 부족), 아니면 미래의 일로 여겨서 노후준비를 유예하거나 하는데, 현재와 같은 우리 사회의 복지서비스를 살펴보면, 현재의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노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 4050 여성 1인가구 경제적 상황

- 4050 여성 1인가구의 경제활동상태를 보면, 이혼/사별 집단의 경우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지며,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임. 비혼 집단의 경우에도 정규직 비율이 30대에 60%를 넘었다가 다시 40대에는 50%대로 떨어지는 등 불안정한 경제조건에 처함

■ 표 ■ 서울시 4050 여성 1인가구 고용형태 변화

(단위: 명, %)

구분		정규직	비정 규직 (파견 /기간)	비정 규직 (단기)	정부 일자리 사업	자영업	무급 가족 종사자	일하지 않음	합계
20대 주된 일자리	비혼	140	41	9	3	7	1	39	240
		58.3	17.1	3.8	1.3	2.9	0.4	16.3	100.0
이혼/ 사별	이혼/ 사별	109	47	12	5	0	2	50	225
		48.4	20.9	5.3	2.2	0.0	0.9	22.2	100.0
30대 주된 일자리	비혼	148	29	14	1	19	2	27	240
		61.7	12.1	5.8	0.4	7.9	0.8	11.3	100.0
이혼/ 사별	이혼/ 사별	69	35	11	4	6	1	99	225
		30.7	15.6	4.9	1.8	2.7	0.4	44.0	100.0
40대 주된 일자리	비혼	139	32	15	0	43	0	11	240
		57.9	13.3	6.3	0.0	17.9	0.0	4.6	100.0
이혼/ 사별	이혼/ 사별	76	55	20	3	23	6	42	225
		33.8	24.4	8.9	1.3	10.2	2.7	18.7	100.0

- 현재의 생활수준(주관적)은 보통 이하였으며, 향후 생활수준도 현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정책으로 쉽사리 해결될 수 없으나,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상담이나 플래너 활용가능(50+재단 활용 가능성 타진)

□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계

-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은 친구이며, 가족과의 만남은 월 1회 혹은 명절에만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기존의 친구관계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으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원하는 사람도 있음. 그러나 마을단위를 통해서 1인 가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노출, 불편한 인간관계 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마을단위 이외 다른 형태(그리다 협동조합, 의료생협 등)의 형태가 더 적합할 수 있음.

□ 경제단위로서의 1인 가구

- 주거문제 해결과 경제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적 수준에서 일 자리의 제공이나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전문직 등 전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1인 가구는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적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4050 여성 1인가구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유형을 만들어서 대처해나가지 않으면 안 됨. 독립과 공존을 함께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1인가구가 임시적이라는 생각보다는 평생 1인가구라는 생각에 맞춰 주거 등의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음.

□ 후견인제도

- 위급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지역 거점 병의원 등)이 나 기존의 가족관계를 통한 보호자 관계를 형성하기가 힘들거나 원하지 않는 1인가구를 위해 상호 후견인제도 등을 도입 등 가능
예) 장애인 성인후견인제도, 생활동반자법, 100인 입양

토론 2.

「1인가구여성, 이기적 선택은 있는가?」에 대한 토론

송영신 (변호사, 시니어희망공동체_구.한국1인가구연합 상임대표)

I. 발제 1 '구조적 한계와 능동적 선택 사이에서'에 대하여

1.

김현미 교수님은 여성 1인가구를 기존 문제적 존재로서의 '낙인'의 대상에서 이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서의 새로운 생애 각본의 하나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하에서 경제적 불안정성, 현대사회의 요구와 도전에서 전통적인 젠더 관념 내지 젠더 불평등의 낡은 구조의 한계, 그리고 다원주의적 가치관의 증가라는 시대상황에서 여성들이 최적화된 삶의 방식으로 1인가구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여성 1인가구의 장기적 생존 및 생활전략과 미래상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은, 오늘날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적 흐름에서 시의적절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2.

다만,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발제문은 2010년 기준 1인가구의 비율을 제시하여 그 비율이 23.9%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지난 2015년 인구 주택 총 조사 결과에 따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1인가구는 520만 가구로 전체 가구 1,911만 가구 중 27.2%로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하였다.²⁰⁾ 두 번째로, '정상가족'의 개념에 대한 부분이다. 우리는 불과 30년 전 제도권 내 공교육에서 핵가족화를 현대사회로 발전하는데 있어 부작용 내지는 문제점으로 배워왔다. 과거 대가족제도의 미풍양속이 없어지는 단절적 가족제도로서의 그것이였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한 쌍의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가족'인 핵가족을 정상가족으로 보고 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지금 1인가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30년 후에도 똑같이 바라보고 있을까?

20) 1인가구 5,203,000가구(27.2%) / 2인가구 4,994,000가구(26.1%) / 3인가구 4,101,000가구(21.5%) / 4인가구 3,589,000가구(18.8%) / 5인이상가구 1,224,000가구(6.4%) : 2015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자료)

3.

끝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린다.

첫째,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2010년 이후의 1인구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2010년과 2015년을 대비하여 보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여성 1인가구 비율은, 2010년 기준 50.4%(2,124천 가구)이고 2015년 기준 50.2%(2,610천 가구)로 오히려 0.2%p 감소했다. 그 중 연령별로 비교하면, 20~50대는 남성 1인가구의 비율이 여성 1인가구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2010년·2015년 공통됨). 특히, 30대의 경우 2010년 기준 남성 1인가구는 26.9%로 여성 13.9%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많고 2015년 기준으로 보아도 남성이 23.5%로 여성 13.1%보다 월등히 많다. 그리고 남·여성의 비율 차이는 30대 > 40대 > 20대 > 50대 순으로 나타난다.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에 비해 많은 분포를 나타내는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남성이 7.3%인 반면 여성은 27.6%로 무려 4배 가까이 많다. 요약하면, 청장년층 1인가구는 남성이 여성보다 그 비율이 높고, 노년층 1인가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발제를 통해 여성 1인가구의 급증에 대하여 탈 가부장적 가족제도, 경제적 빈곤화, 강력한 성차별에 노출된 대다수 여성의 선택 등 다양한 원인 분석을 하셨는데, 위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다.

둘째, 1인가구의 미래상으로 공동주택을 제시하였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성공적인 모델을 구상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설계가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II. 발제 2 '1인가구 담론이 담지 못하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1.

성평등복지팀에서 1인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1인가구 여성 140명에 대한 설문 조사와 15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자 기본정보를 보면, 설문조사의 대상 연령대가 20대가 55.8%로 과반이고 20~40대까지 98.5%인 반면, 50대는 2명으로 1.5%에 불과하고 60대 이후의 연령대에는 전혀 없다. 이를 두고 '전체' 1인가구 여성의 의사를 모두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1인가구는 연령대별로 거주 지역, 결혼여부, 교육수준, 경제적 종사자 지위, 가구소득, 독거기간, 1인가구인 이유, 혼자 살면서 힘든 점과 좋은 점의 차이, 혼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에 대한 차이, 1인가구로 살면서 느끼는 걱정거리 등 제 특성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성 1인가구 중 58.5%를 차지하는 50대 이상의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인식조사가 없는 것은 여전히 아쉽다.

2.

하지만, 1인가구가 임시적이 아닌 보편적 형태로 인식해야 하는 점에 대한 지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형태 중 가장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를 보더라도 향후 지속적인 진행될 현상이다. 그렇다면, 1인가구를 전통적 가족개념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벗어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호'에 따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헌법상 보호하는 가족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는 헌법상 보호되는 가족제도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마찬가지로 건강가정기본법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는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제도가 현실과의 간극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좁혀나가느냐에 따라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의 수준이 달

라지고 미래세대에 대하여 부담과 비용을 덜 물려주게 된다고 본다. 1인가구가 이미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이를 전통적 가족개념에 대한 도전과 배치로 간주하기 보다는 가족 개념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재인식을 통해 현대적 가족개념으로의 포섭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그러기 위해서, 현행 1인가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전수조사와 기존 법제도와 각종 정책에서 나타나는 1인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일괄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1인가구 스스로 자기 돌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새로운 영역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토론 3.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1인가구의 모습 :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와
〈미운 우리 새끼〉 중심으로

이지혜 (대중문화 웹진 IZE 기자)

미디어에서 1인 가구는 tvN <식샤를 합시다>, <혼술남녀> 등 ‘먹방’ 프로그램의 유행으로부터 미디어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나 혼자 산다>나 SBS <미운 우리 새끼>와 같이 11시에 하는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소재로 등장할 만큼 대표적인 생활방식이 됐다. <나 혼자 산다>와 <미운 우리 새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형식으로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연예인들의 삶을 보여준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7%로 520만 가구(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가 넘는 지금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1인 가구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20대 17%, 30대 18.3%, 40대 16.3%, 50대 16.9%, 60대 12.8%, 70세 이상 17.5%로 전 세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1인 가구는 아직 ‘정상가족’을 이루지 못한 하나의 과정인 상태로 인식된다. 이들 프로그램에서 1인 가구는 ‘아직 결혼하지 못한’, 혹은 ‘결혼 제도에서 탈락한’ 미완성인 가구로 인식한다.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꾸미고 산다. 허세가 심하다.” “(남자가) 이렇게 혼자 요리도 하고 노래도 하고 다 하니깐 결혼을 못한다.” <나 혼자 산다>에서 개그우먼 이국주가 방2개, 거실, 주방이 있는 집을 샀을 때, H.O.T.의 전 멤버 장우혁이 화이트 톤으로 꾸민 집을 사서 어머니를 초대했을 때 들었던 말이다. 이국주의 경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10년간 일하며 돈을 모았으며 6개월을 넘게 인테리어를 고민했다. 장우혁도 인테리어 소품을 사기 위해서 직접 해외 직구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미혼인 1인 가구라는 말이 붙게 되면 지나친 욕심으로 치부된다. 장우혁은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삶의 지향점이 명확하게 있어, 먹는 것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두 단순한 삶에 맞춰져 있지만 어머니에게는 유난을 떠는 아들일 뿐이다.

결혼 ‘못’ 한, 혹은 ‘안’ 한 1인 가구는 부모 앞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불효자지만, 이들을 그리는 양식은 매우 다르다. <나 혼자 산다>에서는 여성들도 자주 출연을 하는데, 남성 출연자들이 회를 거듭하면서 성장 서사를 보여주는 데 반해서 여성 출연자들은 성상서사가 부족하다. 장미밴드의 육중환은 8개월 동안 집 청소를 해본

적이 없고 옥탑방 집의 싱크대는 쓰레기장과 다를 바가 없지만, 청소를 해보기도 하고 이후 그는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이사했다. 그 외에도 황치열은 너무 좁아 정신없는 옥탑방에 살다가 깔끔한 새집으로 이사를 하고, 김용건은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요리를 배운다. 그러나 여성 출연자는 시작할 때부터 이미 깨끗하게 정돈된 집을 보여준다.

이국주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콩나물 해장국과 순대 볶음을 해먹고, 꼼꼼하게 음식 정리를 하며 후배들에게 밥까지 먹인다. 모델 한혜진은 체중관리를 위해서 식단관리를 하고, 배우 김연경은 요리를 조금 못하지만, 만둣국을 해먹고 매일 청소를 한다. 대부분의 여성 출연자들은 깨끗하게 집안을 관리하며 살아간다. 이들에게 큰 일은 전구를 갈거나, 벽의 생긴 작은 구멍을 메우는 일 정도이며, 주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친구나 가족을 불러 음식을 해주는 일상을 보여준다. 20대 힙합 뮤지션 헤이즈가 “(혼자 사는 일이) 매일매일 시험 같은 나날들이었고, 그러면서 점점 어른이 되고 강해진 것 같아요”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시험 같은 나날들을 보여주고 해결하는 모습은 여성 출연자가 아니라 남성 출연자의 이야기다. 허접하고 가난한 생활을 청산하고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거나, 어지러운 집을 조금이라도 낫게 꾸미기 위해서 남성 출연자들은 고군분투한다.

여성 출연자들의 집은 이미 깨끗하므로, 혹은 깨끗하게 보여야만 하므로 이런 적극적인 서사를 만들기 어렵다. 또한, 여성 출연자들의 일상에 대부분은 소비생활을 하는데 반하여, 남성 출연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계발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보여준다.

남성 출연자는 허술한 행동이 캐릭터는 강화해주는 하나의 장치가 되기도 한다. 기안 84의 경우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줬던 더러운 행동이 하나의 에피소드로 등장하기도 했다. 그만큼 남성 출연자는 밑바닥까지 보여줘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 여성 출연자 중에 그나마 황석정이 가스비를 체납해 버너로 밥을 하고, 빗이 부러져 키우던 개의 빗을 빌려 쓰는 정도다. 현실의 여성들이 모두 청소와 요리를 모두 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경

우 상대적으로 여성 출연자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남성과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 반면, 남성 출연자는 아무리 밑바닥을 보여줘도 관대하다.

이런 인식의 기반은 <미운 우리 새끼>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미운 우리 새끼>에서처럼 “저러니 빨리 결혼을 해야 해”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토니 안이 식사를 대충하는 것도,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물이 썩어 있는 것도, 박수홍이 매일 클럽에 가는 것도, 김건모가 매일 반주를 하고 라면에 자연산 송이를 넣어 먹는 것도 모두 결혼을 하면 해결될 일로 치부한다.

<미운 우리 새끼>의 쇼 안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 그중에서도 특히 (가임기 여성인) 20대~30대 초반인 모든 여성은 출연자의 연애대상으로 취급을 받고, 여성이 출연자에게 관심이 있는지 결혼 생각이 있는지만 궁금해 한다. <미운 우리 새끼>의 등장하는 남성출연자의 어머니들은 출연자들의 나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연상의 며느리에 대해서는 “애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조건’의 여자는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하면 그만 두고 집안일을 하며 애를 셋이나 낳아”기르는 여성이거나 “연상, 외국계, 명절이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오는 여자가 아닌 (조신한) 여자”다.

결과적으로 <미운 우리 새끼>는 가부장제의 불평등한 규칙을 재생산한다. 남성 출연자들이 아내가 없으므로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암묵적인 전제를 하고 있는 <미운 우리 새끼>는 며느리가 그 돌봄을 대신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말한다. 그래서 아직 가부장이 되지 못한 이들은 아직도 “아이 같은 얼굴은 한” 어머니의 “새끼”이며, 40대가 돼서 자기 생활을 잘 꾸려가는 남성이라도 그를 가부장으로 만들어 줄 아내와 자식이 없으므로 불쌍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더러워도, 지나치게 아이 같아도, 지치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도, 밑바닥을 보여도 괜찮다.

여성 출연자는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며, 혹은 보여주어야만 하는 압박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디어에 비춰지는 여성 출연자는 대부분 누군가의 도

움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진다. 그러나 남성출연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나 혼자 산다>가 이것을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스스로 발전해 나가야 할 모습으로 그린다면, <미운 우리 새끼>는 며느리의 봉사로 채워줄 것을 요구한다. 이들 프로그램의 시청률을 살펴보면 <나 혼자 산다>가 4.3%대이고, <미운 우리 새끼>는 11.4%(닐슨코리아)다. 시청자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서사를 선택했고, 아마도 이것이 한국에서 더 널리 통용되고 받아들이기 쉬운 인식일 것이다.